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025년 우수시설 국외연수 결과보고집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025년 우수시설 국외연수 결과보고집

일상에 ON 문학상주작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025년 우수시설
국외연수
결과보고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SPO

본 국외연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학상주작가지원사업의 2025년 우수시설 담당자, 상주작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p.4 I. 2026년 문학상주작가지원사업 소개

p.6 II. 문학상주작가지원사업 2025년 우수시설 국외연수 개요

p.8 III. 문학상주작가지원사업 2025년 우수시설 국외연수 일정

p.11 IV. 주요 연수 내용

p.26 V. 국외연수 참여자 후기

p.76 VI. 연수참여자 이력 및 소감



I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소개



사업 소개

-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학작가가 전국 도서관, 문학관, 서점에 상주하며 지역 주민 대상으로 문학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 선정된 문학 시설에는 전문인력과 문학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방문객 개발 및 시설의 활성화를 돕고, 상주 작가에게는 인건비와 창작공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문학상주작가 사업은 작가와 문학 시설, 그리고 이용자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의 문학 수요를 창출하고 문학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목적

작가가 도서관·문학관·서점에 상주하며 지역 주민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문학 수요 및 문학 향유 기회를 활성화하고,
문인들의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사업 추진 방식

- (1단계) 참여시설 공모
- (2단계) 시설-작가 온라인 매칭박람회
- (3단계) 시설별 작가채용

지원 내용 및 규모

상주작가 인건비, 고용부담금, 문학프로그램 진행비

사업기간 (상주작가 활동기간)

2026년 2월~12월(10개월)(2026년 5월~11월(7개월))

주최/주관/후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참여 문학시설 및 상주작가

전국 총 96개소, 99명

II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025년 우수시설 국외연수 개요



연수 목적

• 2025년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우수 시설에 선정된 시설 담당자 및 상주작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상 연수로 호주의 문학 축제, 문학 시설 및 기관 탐방

1. 글로벌 문학 콘텐츠 트렌드 리서치

시드니 작가 축제 등 세계적 문학 축제 참관을 통해 문학계와 출판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상주 작가와 담당자의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기획 역량 제고

2.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창작 생태계 벤치마킹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인 멜버른과 시드니의 도서관, 독립서점, 창작공간 방문을 통해 문학을 통한 도시 브랜딩 사례 조사 및 문학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사례 벤치마킹

3.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 교류 기반 마련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협업방안 발굴 및 네트워킹 강화

4. 문학 작가 창작 소개 발굴

창작 영감 및 소재 발굴을 위한 호주 고유 문화자원과 생태계 자원 탐방

연수 기간 및 장소

연수 기간

2026.5.19(화) ~ 5.27(수) / 7박 9일

연수 장소

호주 시드니 및 멜버른

연수단

총 8명 (2025년 우수시설 담당자 및 작가 6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

연번	소속	구분	성명	비고
1	중화문학도서관	시설 담당자	전수지	
2		작가	김홍	소설
3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시설담당자	김성하	
4		작가	오시은	아동청소년문학
5	시옷책방	시설담당자	남규조	
6		작가	김중석	그림책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장	윤지현	
8		차장	서유미	

III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025년 우수시설 국외연수 일정



	일자	장소 (출/도착)	주요 일정
1일	5.19(화)	출발	인천→시드니로 이동
2일	5.20(수)	시드니	**호주 고유 문화자원 탐방 및 창작소재 발굴 I**
			Rocks 지구 탐방 : 영국계 이주민이 호주에 최초로 정착한 지역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내부 투어 : 시드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건축 과정, 설계 비하인드 및 공연장 구조 확인
			타롱가주 탐방 및 원주민 스토리텔링 투어 : 카메라이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호주야생동물 및 자연에 대한 스토리텔링 경험
			공연 관람(뮤지컬 라이온킹/캐피톨 극장) : 토니상 6개 부문 수상작으로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 등 콘텐츠의 멀티유즈 사례 경험
3일	5.21(목)	시드니	**호주 유관기관 방문 및 네트워킹**
			Writing Australia 방문 및 인터뷰 : Creative Australia (구. 호주예술위원회) 산하 문학 전담 기구
			Royal Botanic Garden Sydney 레지던시 탐방 및 인터뷰 :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유사 운영 사례 확인
			뉴사우스웨일즈 주립 도서관 방문 및 인터뷰 : 1826년 개관,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시드니 작가 축제(Sydney Writers' Festival) 프로그램 참관 I "나를 만든 도서관" : NSW주립도서관 200주년 기념 프로그램 : 작가들이 말하는 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가치
4일	5.22(금)	시드니	**시드니 작가 축제 탐방**
			시드니 작가 축제 참여 중인 정보라 작가 미팅
			축제 현장 서점(Harry Hartog Bookseller) 방문 및 축제장 관람 : 축제의 메인 허브인 캐리지워크(Carriageworks) 내에 대규모 팝업 스토어를 운영, 모든 초청 작가의 도서 판매 및 사인회를 전담
			시드니 작가 축제 프로그램 참관 II (Carriageworks) : 정보라 작가 대담 프로그램 참관(Found in Translation 번역의 재발견 : 낯선 것과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
			Better Read Than Dead 독립서점 방문 : 시드니 작가 축제 공식 파트너 서점 중 하나로 축제 기간 중 SWF특별 큐레이션 진행
			Darling Square Library 방문 : 더 익스체인지(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구마 겐고가 설계) 건물 내 위치한 도서관으로 메이커스페이스, 키즈존 운영 등 차세대 도서관
			비비드 시드니 라이트 축제 : 도시 전체의 스토리텔링화 사례 참관

	일자	장소 (출/도착)	주요 일정
5일	5.23(토)	시드니 →멜버른	**문학창의도시 멜버른 문학 및 예술생태계 탐방 I**
			시드니→멜버른 이동
			ACMI (Australia Centre for the Moving Image) 탐방 :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디지털 아트 등 움직이는 이미지를 다루는 호주 국립 영상 박물관
			THE IAN POTTER CENTRE : NGV AUSTRALIA 탐방 : 호주 자국의 미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된 대규모 미술관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의 일부로 운영)
			호지어 레인(Hosier Lane) 그래피티 예술 거리 : 멜버른 중심부에 있는 그래피티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골목길, 골목 전체가 거대한 야외 갤러리
			멜버른 역사지구 탐방 - St.Paul, Flinders St. station
			니콜라스 빌딩 방문 : 멜버른의 오래된 랜드마크 건물로 100명 이상의 예술가 전용 스튜디오, 서점, 갤러리가 밀집한 수직형 예술 공동체
			Federation Square : 멜버른 중앙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예술, 문화 및 공공행사를 위한 장소
6일	5.24(일)	멜버른	**문학창의도시 멜버른 문학 및 예술생태계 탐방 II**
			Readings 서점 방문 : 2016년 런던도서전 선정 '올해의 서점상' 수상. 자체 문학상 및 지역작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방문 : 1854년 설립, 호주 최초 무료 공공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의 철학이 시작된 곳
			The Wheeler Center 방문 : 멜버른 문학 클러스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핵심 거점
			The Paperback Bookshop 방문 : 1960년대 개점한 독립서점의 원형. 수준높은 문학 큐레이션과 심야 운영을 통한 지역 문학 커뮤니티의 사랑방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1차 방문 (중세미술/아시아 중심) :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가장 방문객 수가 많은 미술관으로, 세계 최고의 다양한 호주 예술작품 및 피카소, 렘브란트 등 유럽 화가의 작품 소장
7일	5.25(월)	멜버른	**호주 자연생태계 탐방 및 창작소재 발굴 II**
			퍼핑 빌리 : 유칼립투스 숲을 관통하는 기찻길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존이 잘 된 증기기관차 운행
			사사프라스 마을 내 독립 서점 THROUGH THE LOOKING GLASS 방문 : 고전문학, 현지 문학, 빈티지 그림책 등이 큐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중고 책 서점
			필립아일랜드 생태공원 방문 및 펭귄 퍼레이드 : 섬 전체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호주의 대표적인 생태 탐방지
8일	5.26(화)	멜버른 →시드니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2차 방문 (현대미술 중심)
			시드니로 이동
9일	5.27(수)	도착	시드니→인천 도착 및 해산

IV 주요 연수 내용



1 글로벌 문학 트렌드 리서치

시드니 작가 축제 탐방

시드니 작가 축제 개요

- **일정**: 2026.5.18(월) - 5.24(일)
- **장소**: 시드니 캐리지웍스 및 시내 전역
- **2026년 주제**: "Show Me the Truth"
  *가짜 뉴스, 알고리즘, AI 시대에 문학이 가진 '진실'의 힘을 탐구
- **규모**: 매년 전 세계 400명 이상의 작가 참여, 10만 명 이상의 관객 방문
- **운영방식**

공간운영

- 페스티벌 허브, 캐리지웍스(Carriageworks) : 19세기 철도 차량 정비소를 개조한 시드니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 산업 유산의 거칠고 웅장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대규모 공연·전시 시설로 재생.
- 라이브 앤 로컬(Live & Local) : 시내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외곽 지역 시민들을 위해 시드니 전역의 도서관 및 커뮤니티 센터로 주요 세션을 실시간 디지털 스트리밍하는 공유 모델

프로그램 구성

- 유명 작가의 대담이나 특별 강연은 유료로, 전시 및 야외 이벤트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구성
- 맞춤형 프로그램: 성인 대상 메인프로그램 외에 어린이 대상의 'Family Day', 학생들을 위한 'School Days'를 별도 날짜에 운영

파트너십 관리

- 축제 현장에 임시 대형 서점을 운영하거나, 지역 독립서점을 '공식 서점(Official Bookseller)'으로 지정하여 작가 사인회 및 도서 판매를 위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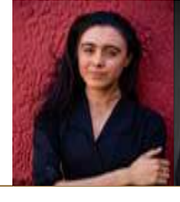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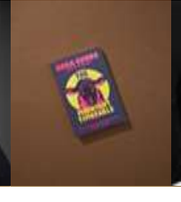
1 시드니 작가 축제(Sydney Writers' Festival)에 참여하는 정보라 작가 미팅

- **일시 및 장소 :** 2026.5.22(금) 09:30 / Carriageworks Lobby
- **인터뷰 참가자 :** 정보라 작가

- 1976년 생
- 연세대 인문학부 졸업, 미국 예일대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석사, 인디애나대 슬라브 문학 박사 취득
- 주요 작품
  - 처단 ('26.3.20 발간 신작), 붉은 칼 (로커스 번역 소설 부문 최종 후보), 한밤의 시간표 (로커스 번역 소설 부분 최종 후보), 저주 토끼 (부커상 최종 후보), 너의 유토피아 (필립 K. 딕상 최종 후보)

- **주요 내용**
  - (해외작가축제 일정) 오클랜드 작가 축제('26. 5.15-17) 일정에 이어, 시드니 작가 축제에 참여하게 됨
  - (시드니 작가 축제에서의 프로그램) 번역 관련 대담 프로그램 외, 모닥불에 둘러앉아 낭독을 하는 세션이 있음. 이 프로그램은 로맨스, 호러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러 장르로 초청됨.
  - (호주/뉴질랜드에서의 한국 문학 위상) 호주는 호주 국내 문학보다는 영미문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아직 한국 문학이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음.
  - (문학 작품 번역) 번역은 단순 한국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옮기는 행위가 아님. 타겟 국가의 언어와 문화가 이해 가능하고, 정서를 고려하여, 해당 언어로 바꿔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

2. 시드니 작가 축제 프로그램 참관

구분	프로그램 I	프로그램 II
일시	2026.5.21(목) 18:00~19:00	2026.5.22(금) 11:00~11:55
장소	State Library of NSW (뉴 사우스 웨일즈 주립도서관 강당)	Carriageworks, Track 8
프로그램	The Library That Made Me 저명한 작가들이 그들을 형성한 도서관에 대해 회상	Found in Translation 번역의 재발견: 낯선 것과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
내용	「나를 만든 도서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도서관 200년」 출간과 관련해, 저명한 게스트들이 자신들을 독자이자 작가로 만들어 준 도서관에 대해 되돌아본다. 작은 이동식 학교 도서관부터 NSW의 미첼 열람실까지, 집필과 독서, 창의성의 중심지인 도서관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사색가들에게 마법 같은 불꽃을 일으켰는지 듣는 시간. 출연진: 레드 룸 포에트리(Red Room Poetry) CEO 존티 클레이폴, 소설가 위니 던(Dirt Poor Islanders), '미래 도서관(The Future Library)' 프로젝트 매니저 안네 베아테 호빈드, 극작가 수지 밀러(Prima Facie), 시인 재즈 머니	"번역은 작가가 전 세계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쓴 문장들이 (번역을 통해)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비디오 게임 번역가인 맷 알트(Matt Alt), 한국어로 작품을 쓰면서 동시에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소설가 정보라(The Midnight Timetable),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스페인어권 작가 마리아나 엔리케스(Somebody is Walking on Your Grave)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번역이라는 '교환'의 과정 속에서, 번역을 하는 입장과 번역을 당하는(?) 입장의 양 측면을 아우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눈다.
	   	

• 시사점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매진 및 만석으로 작가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축제장에 식·음료 푸드트럭을 유치, 관련 서적 판매 등을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미니 도서관 버스 운영
- 불특정 다수에게 책을 추천하는 쪽지를 남긴 후 다른 사람이 쓴 쪽지를 가져가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간단하면서도 문학주간 운영 시 참고할 만한 사례

3. Better Read Than Dead 서점 방문 (시드니 작가 축제 공식 파트너 서점)

• 일정 : 2026.5.22(금) 14:00
• 주요 내용
- 1996년 설립, 론리플래닛이 가장 좋아하는 시드니의 서점으로 선정
- 시드니 뉴타운(Newtown)의 예술가 정신을 상징하며 시드니 작가 축제의 공식 파트너 서점으로 축제 기간 중 SWF 특별 큐레이션 및 테마형 도서 진열
- 지역 커뮤니티와 밀착된, 장르별/테마별 10개 이상의 독서 모임 상설 운영
- 신진 작가들을 위한 자체 문학상 지원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분야별 추천 책이 있으며,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Fiction 부분에 게시됨.
• 시사점
- 서점 직원들이 직접 책을 추천한 추천사가 눈에 띄었음.
- 다양한 독서모임 지원 및 북토크 등 자체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 수행

정보라 작가 미팅



시드니 작가 축제 프로그램 참관







시드니 작가 축제 공식 포스터



Better Read than Dead 방문

BRD 서점 작가 축제 큐레이션

2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멜버른의 창작 생태계 벤치마킹

*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국제적 문화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 도시를 심사해 창의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문학, 영화, 음악, 음식, 민속과 공예, 디자인, 미디어 아트, 건축 등 모두 8개 분야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멜버른은 2006년에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됨

1. 휠러 센터

• 일시 : 2026.5.24(일) 14:30
• 주요 내용
-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선정과 함께 설립된 호주 대표 문학센터, 2010년에 공식 개관
- 10개 이상의 문학 유관 단체가 입주한 세계적인 문학 클러스터로, 문학 단체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업 플랫폼 운영
- 센터 명칭은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인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의 창립자, 토니 휠러(Tony Wheeler)와 모린 휠러(Maureen Wheeler) 부부의 후원을 기리기 위해 붙여짐.

입주 단체명	주요 역할 및 특징
Melbourne UNESCO City of Literature Office	(정책 및 거버넌스) 멜버른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사업 총괄 및 국제 교류 * 빅토리아 주 정보와 멜버른 시 지원 공공조직
Writers Victoria	(작가지원 및 교육) 빅토리아주 최대 작가 지원 기구. 교육, 멘토링, 정보 제공 * Creative Australia의 지원을 받고 있음
Australian Poetry	(시 분야 지원) 호주 국가 단위의 시 전문 기구 및 시인 창작 지원
Melbourne Writers Festival (MWF)	(작가 축제) 멜버른 대표 국제 문학 축제 기획 및 운영
Emerging Writers' Festival (EWF)	(신진작가 육성) 신인 작가들의 데뷔와 성장을 돕는 특화 축제 조직
Small Press Network (SPN)	(독립출판 지원) 독립 출판사 및 소규모 출판인 네트워크 지원
Blak & Bright	(원주민 문학) 호주 원주민(First Nations) 작가 특화 프로그램 운영
Freeplay Independent Games	(융합콘텐츠) 게임 서사(Narrative)와 문학적 가치 탐구 및 축제 운영

• 시사점
- 휠러 센터 건물 내 멜버른의 주요 문학·문화 단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호주 문학계의 '허브'역할 수행 중. 문학 창작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구심점
- 일년 내내 소설가, 언론인, 학자, 등 호주 국내외의 창작자들을 초청하여 공연, 북토크,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사회적 이슈, 문화, 페미니즘 등에 대해 토론하며, 문학을 확산하는 기능도 수행

2. 니콜라스 빌딩

• **일시 : 2026.5.23(토) 17:30**

• **주요 내용**

- 100년 역사의 수직형 예술 인큐베이터
- 1926년에 완공된 유서 깊은 건물로, 초기에는 상업용 오피스였으나, 현재는 100명 이상의 예술가, 작가, 디자이너들이 입주해 있는 창작 거점
- 층별로 세분화된 작은 스튜디오들이 밀집해 있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창의적 생태계로, 작가들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 교류하는 수직형 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수직으로 세워진 골목길(Vertical Laneway)"이라고 부르는데, 멜버른 특유의 미로 같은 골목 문화가 11층짜리 건물 안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
-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공동체가 도시의 문화자산으로 변모한 사례
- 오픈스튜디오(Open Studios) 나이트 행사를 개최하여 예술가의 작업 공간들을 대중에게 개방하기도 함

• **시사점**

- 니콜라스 빌딩은 오래된 낡은 건물로 최신식 편의시설은 없지만,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자본이 부족한 독립 예술가, 장인, 스타트업들의 해방구가 되었으며, 엘리베이터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예술가 간 교류가 가능
- 최근 개발업자들에게 매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입주자들과 멜버른 시민들이 이 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격렬한 보존 운동을 펼침. 이는 시민들이 도시의 공간을 단순히 '부동산'이 아닌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3. 멜버른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 **일시 : 2026.5.24(일) 13:30**

• **주요내용**

- 호주 멜버른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
- 1854년에 설비되어 1856년에 문을 연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도서관이자 세계 최초의 '무료' 공공 도서관
- 세계 10대 아름다운 도서관으로서의 하드웨어와 Start-up HQ(창업자와 창작자를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등 창작 지원 소프트웨어의 결합
- 주요공간
  · 라 트롭 열람실 (La Trobe Reading Room) : 6층 높이의 거대한 팔각형 구조와 천장의 채광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 아래 방사형으로 뻗어 나간 나무 책상 배치
  · 이안 포터 퀸즈 홀 (The Ian Potter Queen;s Hall) : 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공간, 1856년 개관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
  · 전시관 : 도서관 내부에 호주와 빅토리아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된 갤러리가 있음(켈리 갱의 실제 갑옷 등)
  · 디지털&크리에이티브 존 : 어린이를 위한 플레이 공간 및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창작 스튜디오, 창업가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협업 공간

• **시사점**

- 1856년 개관 당시부터 도서관이 내건 슬로건은 '만인의 대학'으로 오늘날에도 멜버른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 노숙인까지 차별없이 수용하는 등 포용성을 바탕으로 멜버른의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 도서관 내 문학 중심 기관인 '휠러 센터'가 있어, 작가, 출판인, 독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
- 어린이 열람실 내 다국어로 된 그림책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한국어 그림책도 비치됨. (기증을 통해 책을 확보함)

4. 멜버른 지역 서점

가) Readings

• **일시 : 2026.5.24(일) 10:30**

• **주요내용**

- 2016년 런던 도서전 선정, '국제 올해 최고의 서점상(International Bookstore of the Year)' 수상
- 자체적으로 '신인 작가상(New Australian Fiction)' , '아동 문학상', '청년 문학상'을 운영
- 수익의 10%를 재단에 기부하여 지역 사회의 문해력 향상과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
- 서점 직원이 직접 쓴 서평과 작가 인터뷰가 담긴 고품질의 잡지를 발행하며 이들의 추천사가 붙은 책은 호주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영향력 있음
- 리딩스 어린이서점은 별관으로 리딩스 바로 옆에 위치, 토요일 오전에는 서점 직원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나) THe Paperback Books

• **일시 : 2026.5.24(일) 15:30**

• **주요내용**

- 1960년대 개점한 독립서점의 원형. 수준높은 문학 큐레이션과 심야 운영을 통한 지역 문학 커뮤니티의 사랑방
- 대형 체인 서점에서는 찾기 힘든 독특하고 엄선된 도서 컬렉션을 비치하고 있음. 다양한 장르의 소설, 비소설, 시집, 예술, 디자인, 역사 관련 서적을 깊이 있게 다루며, 호주 현지 작가들의 작품과 문학 잡지 등이 잘 구비됨.

다) Through the Looking Glass

- **일시 : 2026.5.25(월) 11:30**
- **주요내용**
  - 사사프라스 마을 내 위치한 고서적(Vintage books) 판매 서점. 초판본, 희귀본 서적 다수 보유
  -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의 원제에서 이름을 따왔음.
  - 서점주가 세심하게 큐레이션한 책들이 분야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고전문학, 독특한 컬트 문학 관련 서적, 일반 문학, 호주 현지 문학, 고전 아동 문학과 그림책 컬렉션이 풍부.

휠러 센터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니콜라스 빌딩 내 입주 스튜디오, 예술가 등 안내 표지판



리딩스 서점 내부





Paper Back 서점



Through the Looking Glass 서점

3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교류 기반 마련

1. 라이팅 오스트레일리아 Writing Australia

- **일정 : 2026.5.21(목) 10:00**
- **기관 특징**
  - 호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 기구인 Creative Australia 내에 설치된 문학 전담 기구
  - Creative Australia는 2023년 8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Writing Australia는 2025년 7월 공식 출범

호주예술위원회는 Creative Australia로 출범하며 전문성 중심의 독립 기구 설립, 조직 내부에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들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임.
- Music Australia: 대중음악 산업 지원
- Creative Workplaces: 예술가들의 공정한 보수 및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
- First Nations Arts: 원주민 예술의 자율성 및 주도권 강화
- Writing Australia: 작가 및 출판 생태계 지원

- Writing Australia에서는 작가들의 창작 지원금뿐만 아니라 출판 생태계 활성화, 해외 번역 및 진출, 독서 진흥 등을 통합 관리
- Writing Australia 주요 사업
  · 작가 및 번역가 창작 지원(Individual Grants for Writers and Translators)
  · 호주 출판 및 홍보 기금 (Australian Publishing and Promotion Fund)
  * 독립 출판사, 중소 규모 출판사가 호주 작가 작품을 출판/마케팅하는 비용 보조
  · 문예지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 (Literary Journals and Digital Platforms Fund)
  · 국가 계관시인 프로그램 (National Poet Laureate)
  * 2025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으로, 호주를 대표하는 시인을 선발하여 대중과 문학의 접점을 넓히는 국가적 프로젝트
- 호주 정부가 발표한 5개년 문화예술 정책 Revive: a place for every story, a story for every place
  * '호주의 어디에서든(Place), 누구의 삶이든(Story) 소외되지 않고 예술로 표현되고 존중받아야 하며 예술을 접할 권리가 있다'는 문화적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슬로건
- 문학상주작가 사업과 유사한 레지던시 사업

프로그램명	장소 (소재지)	주요 특징	기간
호주 세계 유산 레지던시 (Australian World heritage Residency)	호주 내 세계유산 등재지 (예: 울루루, 카카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하며,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메시지를 담은 작품 활동 지원 *해당 장소를 테마로 한 신작 발표 등 공공적인 결과물 필요	약 4주~8주

• 인터뷰 참여자 : Wenona Byrne

• **Wenona Byrne**
- 호주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 Writing Australia의 책임자(디렉터)
- 호주 문학 분야 전략 기획 및 투자, 문학 번역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도
- Creative Australia의 개편으로 Writing Australia 라는 문학 분야 독립 지원 기관 설립에 핵심 역할 담당

주요 경력사항
· Writing Australia 디렉터(2025~현재)
·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문학 분야 디렉터(2017-2025)
· Allen & Unwin 출판사 (약 11년 근무)

• 인터뷰 주요 내용
- (WA 설립배경) 호주 정부가 새로운 국가 문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설됨. 기존 공연예술에 비해 문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
- (독서장려프로그램) 긴 글을 읽는 독자 감소에 대비하여, 2027년부터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평생 독서 습관을 기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예정
- (찾아가는 작가 프로그램)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방/시골 지역의 학교, 도서관, 지역 서점에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를 파견하는 사업
- 주요 문학지원 프로그램
  · 작가 개인에 대한 창작지원금, 펠로우십, 프로젝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 (국립 시인 상) 영국, 미국을 모방하여 올해 처음 시도. 추천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
  · (공공대출보상권) PLR(공공도서관)은 1975년 도입, ELR(교육대출권)은 2000년 도입, 최근 DLR(전자책, 오디오북)도 도입. 유명 작가에게만 지원이 쏠릴 수 있어, 상한제 실시, 출판사와 작가가 50:50으로 배분한 후, 3년 후에는 작가에게만 지급.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 중.
- (호주 내 한국문학 현황) 시드니 작가 축제와 같이 주요 문학 행사에 한국 작가 참여가 많아지는 중. 한국 소설의 번역 판권을 직접 구매해서 현지에 출판하기도 함. (이금이, 황석영, 정보라)

• 시사점
- 호주 국민 독서율이 69% 수준에도 불구(한국 독서율 38.5%), 독자 감소를 우려하여 독서 장려 프로그램을 준비 및 문학을 비롯한 출판 생태계 축소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임.
- 문화예술 지원 타당성에 대해 4년마다 대국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65% 이상 국민들이 지원에 동의한다고 응답. 예술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지지를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점 등은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

2. 시드니 왕립 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 Sydney)

• 일정 : 2026.5.21(목) 15:00

• 기관 특징
- 1,816년에 개장,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이자 남반구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식물원. 1915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호주 방문을 기념하여 'Royal'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음.
- 75개국 이상에서 발견된 28,000종의 개별 식물 식재

• 인터뷰 참여자 : Vanessa Fuchs, Cheryl, Leavy, Jess Horwood

Vanessa Fuchs	• Content manager • 과학 커뮤니케이터 • 시드니 왕립 식물원 '브랜치 아웃(Branch Out)' 팟캐스트 진행자 및 프로듀서 • 논픽션도서 『What the Flora?』 집필(26.9월 출간 예정)
Cheryl	• 쿠마와 응구리 부족 출신의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 • 아동문학과 시를 결합, 정원에서의 깊은 소통, 국가와 식물 유산과의 연결을 장려하는 공공 프로젝트 추진 예정
Jess Horwood	• 신진작가이자 만화가 • 토착 식물, 회복력,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삽화와 작품 및 접근하기 쉬운 스토리텔링, 시각적 형식의 프로젝트

• 인터뷰 주요 내용
- (보타닉 가든 상주작가 시작 계기) 보타닉 가든은 과학, 원예, 작가, 예술가, 스토리텔러들에게도 항상 영감을 주는 장소. 보타닉 가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야기 및 행사를 기획하고 싶었음.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소속으로 정부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안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됨
- (보나틱가든 상주작가 지원 프로그램 내용) 작가 2명, 3개월간 각각 15,000AUD 지원, 3곳의 보타닉 가든 (로얄, 블루마운틴, 마운트 안난)이 있으며, 씨앗은행 및 식물 표본관 등 많은 과학 시설이 있는 마운트 안난 가든에서 해당 자료를 볼 수 있음. 교육 프로그램, 도서관, 다양한 원예 작업 등 모든 장소와 전문가 개방
- (보타닉 가든 상주작가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 및 지원자 수) 소셜미디어에서 프로그램을 홍보, 총 135명 지원하고 5명이 인터뷰 대상자에 오름. 글의 퀄리티, 창의적인 콘셉 가든의 가치와 비전 부합성, 시민 참여도,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두고 평가함. 호주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이 필수 자격요건이었음. 신진 및 기 출간 경험이 있는 작가는 모두 지원 가능
- 보타닉 가든 상주 작가의 3개월 간 창작활동계획

cheryl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에 큰 열정이 있음. 아름다운 가든이 있어, 시드니가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 가든 내 작가의 오두막을 조성하여 방문객들도 직접 와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임. 컨셉은 씨앗이 박혀있는 종이 위에 글을 쓰게 하고 그 글이 적힌 종이를 땅에 심어 자라게 하는 것임. 이 활동은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줄 것임. (시 프로젝트)
Jess	3가지 계획, 고무 나무(Gum tree)에 대한 작은 만화 잡지 제작, 호주 자생 식물의 씨앗을 수집하는 식물 은행이 있는데, 방문해서 식물 은행에 대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예정,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언젠가 쓰고 싶은 책의 첫 챕터를 집필하는 것이 목표

• **시사점**

- 작가에게 색다른 경험 및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발굴하고 개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흥미로웠으며, 상주작가지원사업에서도 도서관, 문학관, 서점 등 문학 인접 공간 외 색다른 공간을 향후 발굴할 수 있을지 검토해볼 수 있음.

3. 뉴 사우스 웨일즈 주립 도서관

• **일정 : 2026.5.21(목) 17:00**

• **기관 특징**

- 1826년 개관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2026년 개관 200주년 기념 전시 진행 중
- 1910년 완공된 미첼윙과 1988년 호주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한 현대적인 매쿼리 스트리트 빌딩((Macquarie Street Building)으로 구성
- 호주의 탄생과 식민지 시절부터의 방대한 기록을 품고 있는 역사적 보고, 약 600만 점이 넘는 방대한 소장품을 보유

• **인터뷰 참여자**

- **Genevieve Freeman** (Project Manager)
- **Dr Rachel Franks**(cooordinater, Eduucation&Scholarship)

• **인터뷰 주요 내용**

- (주립도서관의 역사) 1826년 회원제로 운영되던 도서관에서 주 정부가 1869년에 인수해 무료 공공도서관으로 전환, 올해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전체의 도서관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0주년이 된 해
- (호주 도서관 시스템) 국립도서관은 캔버라에 있고, 각 주마다 주립 도서관이 있으며, 지역 구청(Council)이 운영하는 지역 도서관이 따로 있음. 주립도서관의 주된 임무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공공 기록과 역사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것으로, 대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법정납본제도에 따라 NSW주에서 출판된 모든 책은 출판사가 의무적으로 주립도서관, 국립도서관, 의회도서관에 한 부씩 사본을 제출. 공공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분실 위험이 있는 대출은 제한

- (도서관 방문자 및 이용자 연령대) 연간 120만 명 방문, 온라인으로는 약 450만 명이 서비스 이용, 16세~18세 이상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며, 어린이 자료실이 생긴 이후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 추세
- 도서관 펠로우십
  · 역사학자 및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지원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 지원금 규모는 최소 1,000AUD~최대 120,000AUD, 3/12/24개월 과정으로 운영
  · 지원자의 연령대는 20세~74세까지 폭넓음. 작년 기준 참여자의 10%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로, 다양성을 존중함.
  · 선정된 펠로우에게는 도서관 내 전용 연구 공간 제공,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금이 지급됨. 도서관에 머무는 동안 전담 사서가 배정되어 밀착 지원을 받음. 참여자 간 서로의 프로젝트를 돕고 소통하는 협력적인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됨.
  · 프로젝트의 주제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펠로우십이 끝난 시점에는 상세한 연구 보고서와 함께 연구 기간 내 사용한 도서관 소장 자료의 서지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펠로우십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서관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

• **시사점**

- 도서관 자체적으로 창작자 펠로우십 사업이 있는 것이 고무적. 또한, 펠로우십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략적 네트워킹이 이뤄지고, 작가와 도서관이 함께 상생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또한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임.
- NSW 도서관은 독립 연구 기관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음. 문해력 향상, 시민들의 행복도 증진, 무료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계산해 투입된 세금 대비 4배의 가치를 돌려주고 있다고 공표하고 있음. 국내 공공기관 및 도서관이 '방문객수' 등 단순한 정량적 지표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정성적 지표를 제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Writing Australia



Writing Australia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







Royal Botanic Garden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

4 호주 자원 활용 문학 작품 창작 소재 발굴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비비드 시드니



5.20(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내부투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건축 과정, 설계 비하인드 및 공연장 구조 확인



5.22(금) 비비드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빛 축제, 시드니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가 됨.

• 타롱가주 및 라이온킹 공연 관람



5.20(월) 타롱가주
카메라이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타롱가주 호주 야생동물 및 자연에 대한 스토리텔링 경험



5.20(월) 캐피톨극장
토니상 6개 부문 수상작이자, 동물이 주인공인 서사 뮤지컬 라이온킹 관람
* 캐피톨극장 : 1927년부터 영화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뮤지컬, 발레, 연극 등이 현재까지도 꾸준히 상연

• 달링스퀘어 도서관



5.22(금)
시드니 중심부 헤이마켓과 달링하버 인근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구마 겐고가 설계한 더 익스체인지 건물에 위치, 시드니의 새로운 건축 랜드마크
* '조용한 독서실' 분위기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차세대 도서관을 지양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 멜버른 역사지구



5.23(일)
(세인트 폴 대성당) 중세의 고딕을 재현한 양식으로 19세기 최고의 건축가 중 한 명인 윌리엄 버터필드가 설계, 1891년 완공, 멜버른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 세워짐.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1911년에 완공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역, 1920년대 후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기차역'으로 불리기도 함. 멜버른 사람들의 약속의 장소
* '시계 밑에서 만나'라고 이야기하면 이곳을 가리키는 것임

• ACMI(Austalia Centre for the Moving Image)



5.23(일)
멜버른의 문화적 중심지인 페더레이션 스퀘어에 위치,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디지털 아트 등 움직이는 이미지를 다루는 호주국립영상박물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스크린 문화를 선도하는 영상예술기관 중 하나

•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Victoria)



5.25(일) IAN PORTTER / 5.24(월), 5.26(일) NGV International
1861년에 설립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가장 방문객이 수가 많은 미술관, 세계 최고의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호주 원주민의 현대작품도 상설 전시하고 있음. 호주 작가 전시품 외에도 렘브란트, 피카소 등 유럽화가의 작품을 전시, 아시아 화가, 원주민 작품 등 7만 점이 넘는 소장품이 있음.

• 퍼핑 빌리 기차역 및 필립 아일랜드 자연생태공원(Puffing Billy Railway Phillip Island)





5.24(월)
퍼핑 빌리는 1900년대 초반에 건설된 증기기관차 철도로, 100년이 넘은 실제 증기기관차를 운행하며, 울창한 유칼립투스 숲을 관통함. 필립 아일랜드는 멜버른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섬으로, 해 질 무렵 수백~수천마리의 작은 펭귄(Fairy 펭귄)이 바다에서 나와 둥지로 돌아가는 모습 관찰 가능

V

국외연수 참여자 후기



기다리는 마음

중화문학도서관 김 홍 작가

내게 여행은 몇 권의 책으로 남는다. 이번 연수를 떠나는 길에도 트렁크 한켠에 책을 잔뜩 넣었다. 그중에 손이라도 한 번 닿게 되는 책이 몇 권이나 될는지 스스로도 궁금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줄여보려고 중고로 구입한 이북리더기에도 도서관 대출 범위가 허락되는 만큼의 책을 잔뜩 다운로드 받았다.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이번 연수에서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은 사람들로 남았고 나머지 시간은 꽤 많은 책을 읽었다.

정리해 보자면 애나 친의 〈세계 끝의 버섯〉을 주의 깊게 읽었고, 루리의 〈긴긴밤〉을 다 읽었다. 〈삼체〉 1권을 읽어나가기 시작했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스의 책을 두 권 읽었다. 반 정도 남아있던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을 완독하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를 시작하고 끝냈다. 이 중 종이책은 〈세계 끝의 버섯〉이고 나머지는 전부 전자책이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낭비가 존재한다. 가방에 넣어 가져간 종이책 5권 중에 실제로 읽은 것은 한 권에 불과했기 때문에 4권의 책만큼의 무게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탄소 발자국은 간데없이 낭비된 셈이고, 가방을 밀고 다니면서 소모된 나의 열량에 관해서도 (적어도 책 4권의 무게만큼은) 최고의 효율을 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좋았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오차범위가 필요하고, 그걸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소중하고, 공공성이라는 것이 전부 그런 토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연수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에서 말도 안 되게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잔뜩 보고 온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자주 한 생각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예술 지원 정책에 있어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문화진흥원, 한국예



술인복지재단 등의 여러 기관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었다. 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대체로 우리나라 기관들이 확보한 단위가 적지 않았다. 다른 점이라면 호주의 경우 문학 분야를 독립시켜 Writing Australia라는 기구 아래 통합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우리처럼 예술 전 범위가 통합돼 있다는 것에 비교해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았다.

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연수단이 방문한 주립도서관은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처럼 공공 납본을 받는 관내 열람 도서관이었고, 대출이 가능한 시립 도서관도 있었다. 장서량은 우리도 도서관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조금 달랐던 부분은 주립도서관이 마치 공공 갤러리처럼 운영되는 것이었다.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에서 여러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았다. 이미 우리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은 책의 안과 밖에서 전천후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개인적인 기회로 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여한 일도 있고, ARKO의 신규 사업에 대한 자문에 목소리를 보탠 일도 있다. 그때 뵌 실무자 선생님들은 내가 작가로서 고민한 많은 부분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제약들 속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었다. 이번 연수에 함께한 윤지현 차장님과 서유미 차장님의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기획 또한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다른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달랐다. 성정이라고 해야할까. 통역을 담당해 준 김민하 통신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호주 사람들은 좀 쿨해요. 이지 고잉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정말로 좀 그런 것 같았다. 누군가 호주 사람들이 “No worries.”를 입에 달고 산다고 했던 이야기도 기억났다.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호주의 경제 사정도 녹록지 않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복지 제도의 영향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짧은 기간 마주친 몇 사람들과의 대화나 풍경으로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이런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New South Wales 주립도서관에서 이뤄진 인터뷰였다.

NSW 주립도서관은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만난 Dr. Rachel Franks는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였다. 주로 역사학자들과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검증된 작가와 신진 작가를 두루 선발해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된 재원을 지급했다. 선정된 펠로우들에게는 도서관 내 전용 연구공간이 제공되며 도서관에 머무는 동안 전담 사서(Private Librarian)가 배정되어 밀착 지원을 받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 간에 서로의 프로젝트를 돕고 소통하는 협력적인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유의해야 할 것은 연구 및 창작하는 주제가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컬렉션을 메인으로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펠로우십을 하는 동안 작가는 대중 강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도서관의 웹사이트나 매거진에 글을 기고하여 작업 과정 공유하는 것도 필요했다. 펠로우십이 끝나는 시점에 상세한 연구 보고서(Report)와 함께, 연구기간 동안 사용한 모든 도서관 소장 자료의 포괄적인 서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프로젝트와 도서관 자원의 연계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상주작가 프로그램과 다른 지원 제도가 조금씩 섞여 있는 모양새였다. 도서관에서 작업 공간을 제공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작년에 이어 올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주작가 활동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2020년도에 ARKO 〈예술 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에 참여한 일이 있는데, 그때



멘토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았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발간물을 제작했다.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도 비슷한 모양을 띠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것을 물었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료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고민의 연장이었다.

"기간 내에 작업물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잘은 모르지만 내 경우를 비춰봤을 때, 마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미루는 작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창작물을 만들어 가는 것은 공산품을 제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 내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피치 못하게 발생한다. 물론 계약이나 지원금 사업과 관계 없이 자기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상황이라면 창작물을 완성할 때까지 자기만의 속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그럴 때 가장 속이 타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작가 자신일 것이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결과 보고서나 지원금 사용 내역 정산 같은 행정적인 부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약속이다. 나의 행정 처리는 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담당자들의 소중한 업무이고 사업 전체의 완결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나아가 이후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작가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작가들이란! 정산도 제대로 안 하고 무책임하다니까 말이지! 하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곤란하다. 그런 경험을 한 기관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까지 주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작업물은 그것과 어쩔 수 없이 별개인 측면이 있다. 작품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완성도와 진실성에 쫓기기 때문이다. Dr. Rachel Franks는 내 질문에 아주 천천히, 또박 또박 대답했다.

"We wait patiently."

전혀 생각하지 못한 범주의 대답은 아니었는데 유난히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는 것이 언제나 필요하다. 물론 나는 나를 위해 참을성을 발휘해 준 많은 담당자 선생님들의 얼굴을 전부 기억한다. 작가라면 누구나 생각나는 얼굴이 하나쯤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얼굴에 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에도 조금 더 기다려 주고, 인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가 공공성에 대해 조금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갖게 됐는데, 따져보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Wait patiently"하는 마음인 것 같아서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은 종종 '공공서비스만족도'와 혼동되는 것 같다.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서비스가 수용자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여주는지 여부를 공공성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공공성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는 때로 비효율이 개입하기도 하고 정량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서서히 피어나도록 기다려 주는 시간 역시 요구된다. 작가를 위한 지원이든,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이든 간에 그런 일은 일반적인 경제영역처럼 투입과 산출이 단기간에 확실하게 드러날 수 없다.

Dr. Rachel Franks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상상해 보자. Dr. Rachel Franks가 New South Wales 주 정부의 정기감사에 출석한다. NSW 도서관의 펠로우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주의원의 질문을 받는다. 3년 전 펠로우였던 Hong Kim 작가가 여전히 소설을 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공공의 재원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이 작가의 소설가 면허를 (그런 게 있다면)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펠로우십 예산 절반으로 삭감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Dr. Rachel Franks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할 것이다.

"We wait patiently."

나는 시드니에서 멜버른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긴긴밤〉을 읽고 눈물 흘린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하품하는 척을 여러 번 했고, 밤마다 〈세계 끝의 버섯〉을 읽으며 송이버섯이 만들어 내는 경제가 지역마다의 독특한 패치 형태로 엮여가는 과정을 따라갔다. Writing Australia에서 도서관 공공대출보상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시드니 달링 스퀘어 도서관에서는 현지인처럼 자리에 앉아 돌아가서 써야 할 단편 소설의 얼개를 메모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금 덜 빵빵거리는 차들을 보며 여유에 대해 생각하고, 작가와 도서관이 마음을 주고받으며 차근히 성과를 쌓아가던 모습을 기억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상주작가로 있는 중화문학도서관에 돌아와 후기를 쓴다. 나를 기다려 주는 마음에 오늘도 감사하고, 나 역시 조금 늦게 오는 것들을 오래 기다리고 싶다.



호주 시드니, 멜버른 국외연수

: 로열 보타닉 가든 탐방과 상주작가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중화문학도서관 사서 전수지

1. 들어가며

2026년 봄,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우리 중화문학도서관이 전국 우수시설 중 하나로 선정되어 호주 연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2025년 1월에 갓 문을 연 우리 도서관이, 게다가 이제 사서로서 발을 막 뗀 내가 이런 자리를 얻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사서로서, 그리고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의 담당자로서 우리나라의 문학 지원 체계와 사업 운영 방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호주의 선진 문학 생태계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5월 19일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해 시드니와 멜버른을 돌아보는 7박 9일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시드니에서는 호주의 시그니처 '오페라 하우스' 투어를 시작으로 타롱가 동물원의 기린이 우릴 반겨주었고, Writing Australia 방문, NSW 주립도서관 탐방, 시드니 작가 축제(Sydney Writers' Festival) 참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체가 문학과 이어져 있었다. 멜버른은 말 그대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곳이었다. 호지어 레인의 그래피티 골목, 예술가들의 수직 공동체 Nicholas Building, 빅토리아 주립도서관과 휠러 센터, 독립서점

호주의 랜드마크
오페라 하우스
Vivid Light



하버 브릿지 앞에서



Readings와 The Paperback Bookshop, 그리고 Maru의 캥거루 무리와 퍼핑빌리 증기기관차에 펭귄 퍼레이드까지—문학과 자연과 예술이 경계 없이 뒤섞인 도시였다.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부천이 2017년부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였다는 점이다. 누군가 내게 직업을 물을 때, 과연 사서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내심 부끄러웠다.

한편, 호주 정부의 문학 지원 체계를 대표하는 Writing Australia의 책임자 Wenona Byrne 디렉터와의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호주는 연간 800만 AUD 규모의 문학 전담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국의 문학분야 지원 규모가 호주보다 훨씬 더 크고, 호주는 한국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하나만 해도 연간 70~90개 시설, 수천만 원 규모의 국비가 전국 각지로 분산 투입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학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국가 단위 지원 시스템의 체계성과 지역 침투력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꽤나 선진국이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보타닉 가든



버기카 투어



2. 시드니 로열 보타닉 가든(Royal Botanic Garden)

가. 항구와 오페라 하우스를 품은 정원

우리 일행은 시드니 도심 한복판의 신호등과 차량 소음을 등지고 로열 보타닉 가든 안으로 발을 들였다. 문 하나를 경계로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짙은 녹음과 새소리, 그리고 꽃향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 항구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이곳은, 1816년 조성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으로 단순히 식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백 년의 과학 연구와 원주민 문화, 도시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장소다.

가든 관리자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버기카를 직접 운전하며 넓은 부지를 안내해 주었다. 투어하는 동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버기카를 태워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횡재했다. 걸어서는 다 돌아보기 어려운 방대한 정원을 누비는 특별한 투어였다. 버기카가 흙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영화 쥬라기 공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거뜬히 보호수 타이틀을 달았을 만큼 굉장히 키가 큰 나무들 사이로 하버 브릿지의 아치가 보이는 풍경 속에서, 관리자가 들려주는 식물들에 담긴 이야기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풍부했다. 수령 기본 100년이 넘는다는 거목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유럽인들이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디기 훨씬 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 앞에 경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어 가든 내에서 서식 중인 멸종위기 식물들, 세계 각지에서 이식되어 온 희귀 교목들, 그리고 오직 이 정원에서만 자라는 고유종들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한 그루 한 그루에 켜켜이 쌓인 시간과 이야기들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었다. 버기카 투어가 끝날 무렵, 나는 왜 이 정원이 '창작의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작가란 결국 오래된 것들을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정원은 그 원재료를 무한히 품고 있었다. 보타닉 가든은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하우스나 하버 브릿지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가든이 없었다면 시드니는 지금처럼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타닉 가든 상주작가 Cheryl Leavy의 말은, 이 공간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잘 압축하고 있었다.

나. 식물의 향기를 품은 도서관

버기카 투어를 마친 뒤 가든 안쪽 깊숙이 자리한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식물원 안에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바깥의 탁 트인 풍경과 달리 조용하고 아담한 공간이었다. '이런 곳에 도서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눈에 잘 띄지 않

보타닉 가든 도서관



는 위치였고 외관만 보면 그저 조용한 연구동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식물 표본, 희귀 고문서, 정밀한 식물 세밀화, 수백 년에 걸친 연구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인 식물학 아카이브의 보고(寶庫)였다.

서가에는 오래된 식물학 전문 도서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식물 세밀화와 표본 자료들이 함께 보존되어 있었다. 수백 년에 걸쳐 연구자들이 기록하고 남긴 자료들이었다. 종이들이 누렇게 바랬고 딱 봐도 오래된 고서같은데 방문객들이 쉽게 만져볼 수 있게끔 펼쳐져 전시된 점이 신기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시드니 왕립 식물원 '브랜치 아웃(Branch Out)' 팟캐스트 진행자 및 프로듀서 Vanessa Fuchs가 우리를 맞이했다. 버네사는 실제로 그가 쓴 도서의 일러스트들이 모두 이 도서관 소장 자료에서 발췌된 것이라고 했다. 자료를 연구하는 것이 곧 창작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였다.

보타닉 가든 도서관



서가 안내 가이드마저 꽃과 식물을 배경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도서관 내부에 있는 것만으로도 식물원의 정취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담하다'는 표현이 이 공간에 정말 잘 어울렸다. 크기보다 깊이로 승부하는 도서관이랄까? 그러나 작다고 해서 가볍지 않았다. 오히려 꼭 필요한 것만 남긴 듯한 밀도가 있었다.

3. 보타닉 가든 상주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탄생의 배경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버네사와 함께 올해 첫 가든 상주작가로 선정된 두 사람을 만난 일이었다. 어린이 문학가 셰릴 리비(Cheryl Leavy)와 만화가 제스 호우드(Jess Horwood).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의 지원으로 이제 막 첫발을 뗀, 아직은 시범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이다. 본격적인 인터뷰 시간이 이어졌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대화였지만, 각자가 이 프로그램에 담은 마음은 언어를 넘어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전해졌다.

Vanessa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배경을 알려주었다. 시드니 보타닉 가든은 오래전부터 작가, 예술가, 스토리텔러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였다. 과학과 원예,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이 공간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글과 예술로 만나게 하고 싶었고, 가든을 알릴 수 있는 이야기와 행사를 기획하고 싶었다. 그 바람이 NSW 주 정부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올해 처음 프로그램이 출범하게 되었다.

레지던시는 총 3곳의 보타닉 가든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Royal Botanic Garden(시드니), Mount Annan Garden(씨앗 은행과 식물 표본관 등 과학 시설이 집중된 곳), Blue Mountain Garden 이렇게 3곳이다.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보타닉 가든이지만 예산은 NSW 주 정부에서 지원한다. 선정된 작가들은 3개월간의 레지던시 기간 동안 각각 15,000 AUD를 지원받는다. 호주의 Writing Australia가 추구하는 문학 생태계 지원 철학—특정 장소와 창작이 만나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나. 선정 기준과 인원

이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시작되었음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모에 무려 135

보타닉 가든 상주작가들과의 인터뷰



보타닉 가든 도서관 안에서



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5명이 면접 대상자로 올랐고, 최종적으로 2명이 선정되었다. 심사는 다섯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① 글의 퀄리티, ② 창의적인 콘셉, ③ 가든의 가치와 비전과의 부합성, ④ 시민 참여도, 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그 기준이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호주 거주자로, 신진 작가와 출판 경험이 있는 기성 작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서류는 프로젝트 기획서와 이력서로 구성되는데 단순히 '좋은 작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든이라는 장소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를 찾는 과정에 가깝다. 또한 프로그램의 취지가 의도적으로 드러나있어, 가든의 자원과 소장품을 독창적으로 활용하는 제안을 반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 두 작가, 두 개의 이야기

선정된 두 작가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작가들이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왜 선정되었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

1) 만화가 Jess Horwood

신진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만화도 그리고 글도 쓰는데, 더 가디언(The Guardian)이라는 온라인판에 작품이 실리기도 했다. Jess가 레지던스 기간에 계획한 일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고무나무(Gum tree)에 대한 작은 만화 잡지를 제작한다. 둘째, 호주 자생 식물의 씨앗을 수집하는 식물 은행(seed bank)을 직접 방문해 식물 은행에 대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셋째,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언젠가 쓰고 싶었던 책의 첫 챕터를 집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2) 어린이 문학가·시인 Cheryl Leavy

쿠마와 응구리(Kuma-ngurii) 부족 출신의 수상 경력이 있는 원주민 작가다. 2024년에 출간한 도서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에 깊은 열정을 가진 것이 느껴졌다.
Cheryl이 이번 레지던시에서 추진하고 싶은 일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동 도서 집필이다. 특정 장소와 깊이 연결되고 그 장소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런 생각은 원주민 문화의 일부라고 한다. 보타닉 가든이 없었다면 시드니는 지금처럼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라는 Cheryl의 이야기는, 장소가 지닌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했다.
두 번째 계획이 특히 마음에 남았다. 그는 가든 안에 '작가의 오두막'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딜런 토마스나 버지니아 울프처럼 많은 유명 작가들이 자신만의 집필 공간을 가졌던 것처럼, 또한 방문객들이 직접 그 공간에 와서 글을 쓸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핵심 콘셉은 씨앗이 박혀 있는 종이 위에 글을 쓰는 것이다. 그 종이를 땅에 심으면 글이 자라나는 것인데,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프로젝트이자 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했다. '시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마음과 바로 연결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언어'라는 Cheryl의 말이 유난히 마음 속에 영글었다.

라. 상주작가의 하루 — 공간과 자유

두 작가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가든이 작가에게 열어주는 접근의 반경이었다. 도서관, 회의실, 다른 직원들 사이의 공간, 정원 안 카페, 온실, 식물 은행—이 모든 시설에 작가들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글을 쓸 수 있다. 두 작가는 이미 여러 공간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창작 리듬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레지던시 기간을 단순히 '작업'으로만 채우지 않고, 가든의 시설과 전문 인력들과 맞닿아 직접 탐사하고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창작의 일부였다. 두 작가는 도서관도 다녀왔고 가든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해 온실을 돌며 고사리들을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했다. 가든 안 카페에 앉아 글을 쓰기도 하고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기도 한다며, 상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 공간을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임을 두 사람의 표정과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숙박은 가든 내부에서 하지 않고 근처 호텔에 머문다고 한다. 그 점이 크게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Cheryl은 캐나다에서도 벤프 레지던스 프로그램(Banff Centre for Arts and Creativity)에 참여했었는데 그곳은 작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숙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가든 내 거대한 호텔 시설이 있어 작가들이 아예 상주하며 교류가 가능하다 하니 시너지효과도 있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4. 도서관 사서의 시선으로

가. 호주 상주작가 시스템의 시사점

보타닉 가든 레지던시는 단순히 '작가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정원의 생태, 식물학 아카이브, 과학 커뮤니티, 그리고 창작이 한데 얽혀 전혀 새로운 문학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실험이었다.
한국에서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타닉 가든의 레지던시 모델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우리나라도 작가가 레지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문학관이나 도서관에 한정하지 않고, 국립수목원이나 생태공원, 박물관, 갤러리처럼 비문학적 공간으로 확장한다면 어떨까?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호주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물들
NSW 주립 도서관

나. 도서관이 창작을 품을 때

이번 방문에서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것은, 도서관이 '자료를 보관하고 이용하는 곳'을 넘어 '창작을 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보타닉 가든 도서관은 규모 면에서 결코 크지 않다. 하지만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식물학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그 자료가 실제로 작가의 책 일러스트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우리 중화문학도서관은 작년에 개관한 작은 규모의 문학 주제 특화 도서관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어쩌면 이 보타닉 가든 도서관처럼 특색 있는 소장 자료와 방향성을 가질 여지가 더 크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도서관 옆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매년 장미축제를 진행하는 장미공원과 장미터널이 널따랗게 이어져있다. 도서관 뒤편에는 최근 조성된 공원이 있다. 규모로 경쟁하기보다 지역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도서관—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일 수 있겠다는 고민이 생겼다.

다.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이번 연수 전까지 나는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로 '작가가 우리 도서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보았다. 프로그램 기획, 참여자 수, 이용자 반응—이런 것들이 늘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다.

하지만 Cheryl과 Jess를 만나고 나서 질문이 조금 달라졌다. '우리 도서관이 작가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라는 방향으로. 두 작가는 보타닉 가든의 도서관을, 가든의 공간을, 가든의 전문가들을 자신의 창작에 연결짓고 있었다. 상주한다는 것이 작가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창작의 깊이를 더하는 경험이 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관의 역할 아닐까 싶다.

5. 나오며

이번 호주 연수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도서관, 서점, 작가 축제, 레지던시 현장 등을 두루 돌아보며 호주의 문학 생태계 전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많다.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빅토리아 주립도서관의 멋진 돔 천장 아래 늘어선 책상을 따라 공부에 몰두하던 시민들, 시드니 작가 축제에서 정보라 작가(이날은 번역가로 오셨다)와의 미팅과 대담 현장을 가득 채운 독자들, 독립서점에서 본 손글씨로 정성껏 큐레이션된 책들과 한국 젊은 작가들의 책, 고유가로 인한 무료 대중교통 개방으로 원없이 탔던 트램... 그리고 한국에 온 지금까지 여운이 길게 남아있는 첫날 야외 카페에서 마신 정말 맛있는 플랫화이트까지. 우리는 메뉴 고민이 필요 없었다. 아이스크림이든 카페든 어디서 뭐가 유명하다 하면 일심단결 대동하고 일주일 간 호주에 있으면서 그 누구도 김치찌개를 찾지 않은 게 생각나 웃음이 난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도서관 사서로서, 그리고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호주의 케이스를 통해 도서관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상주작가와 연결하고, 작가의 창작물을 어떻게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지—순환의 고리를 잇고 그 저변을 확장하게끔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다. 중화문학도서관이 앞으로도 상주작가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시간을 알차게 채워갈 수 있을지 많은 질문들을 품고 돌아왔다.

단순한 도서관과 문학시설이 아니라 자연과 과학, 그리고 문학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진정한 창작의 산실. 호주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연수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분들과 7박 9일의 여정을 함께한 작가님들, 사업 담당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플랫화이트



첫날 방문했던 카페



구루발루의 작가견문록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오시은 작가

여행객들은 나를 까치라고 하더군. 이곳 사람들은 맥파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뭐라고 부르 건 내 진짜 이름은 따로 있어. 구루발루. 그게 내 이름이지. 가까운 친구들은 그냥 '발루'라고 불러.

나더러 "까치네."라고 말하던 이들을 만난 곳은 포트 잭슨이었어. 언제나 여행자들이 넘쳐나는 항구 말이야. 파라마타강 하구 바닷가인데, 멋들어지게 생긴 공연장과 철재로 만들어진 아치교가 유명하잖아.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솔직히 나도 그걸 보려고 갔던 거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을 만나러 갔구나 싶어. 아, 참고로 나는 운명 어쩌고 하는 걸 믿지 않아. 친구들이 점성술 하는 까마귀 집에 재미 삼아 몰려갈 때도 슬그머니 도망칠 정도니까. 그런 내가 그들을 운명이라고 여기게 된 건 좋아하는 게 같아서였어. 그들이 커피를 마시며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책과 작가들에 대해 말하더군. 실제로 그 중 몇은 작가라던데, 유독 눈길이 가는 이가 있더라고. 때때로 시선을 먼 곳에 두는 작가였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으려는 탐험가 같더란 말이야. 그때 감이 왔지. 그가 뭘 찾고 있는지 말이야. 이야기. 그것도 엄청나게 재미난 이야기.

나도 많이 해 본 일이라 금세 알 수 있었어. 그렇다고 나도 작가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야기를 사랑하는 건 작가 못지않다고 자부해. 쫄깃하고, 숨 막히고, 따뜻하고, 울컥하고, 기품 있는 언어로 가득한. 왜 있잖아, 시간을 잊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 참고로 내 둥지는 오래된 서점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에 있어. 이만하면 내가 책과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지? 나는 먹는 거 다음으로 이야기를 좋아해. 재밌는 이야기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라고. 그래서 그날 포트 잭슨에서 결심했지. 여행객들, 아니 이야기를 찾는 작가를 따라다니기로.

그의 눈동자가 빛나던 순간이 기억나는군. 작가들을 지원하는 곳의 책임자를 만났을 때였지. 작가에게 상금도 주고, 한 명의 시인을 뽑아 국립 시인상도 주고,

여행 기금도 주고, 문화유산에서 작업할 기회도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을 땐 고개만 끄덕이더라고. 하지만 도서관에 책이 비치되면 작가에게 보상한다는 대목에서 눈동자가 커졌어. 출판사와 작가에게 반반씩 보상하다가, 삼 년 후부터는 작가에게만 보상하는데, 유명 작가에게 쏠리지 않게 상한제를 둔다고 했지. 그 모든 게 법에 따라 지켜진다는 말을 듣는 그의 눈에 부러움이 흘러넘치더군. 나한테는 전혀 새롭지 않은 얘기라 그런 반응이 신기했지. 인간의 시간으로 치면 삼십 년도 더 된 일이라 고전이나 마찬가지였거든. 그토록 당연한 걸 부러워하는 게 흥미롭더라고.

다음으로 간 곳은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있는 로열 보타닉 가든이었어. 마침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던 차라 반가웠지. 말이 가든이지 여긴 원시 식물원이라고 봐야 해. 수백 년 된 거목들이 솟아 있는데, 그 중엔 공룡의 먹이였던 올레미 소나무도 있지. 그뿐인가,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고사리들이 나무처럼 자라서 밀림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알록달록한 야생화들이 철마다 피어나니 새들에게는 가든이 아니라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런데 이곳이 작가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 천국과도 같은 이곳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창작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였지. 마침 두 명의 작가가 지원받고 있어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더군. 이곳에서 어린이책을 쓴다는 작가는, 가든에 '작가의 오두막'을 만들고 싶댔어. 그 얘긴 나도 좀 솔깃했어. 멜버른 책방에 마련한 둥지처럼 '작가의 오두막'에 둥지를 짓고 싶었거든. 박제되지 않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을 기회를 얻는 건 꽤 매력적인 일이잖아. 그런 곳에서는 새들도 맑은 소리를 내는데, 사람이라고 다르겠어. 작가들이 멋진 이야기를 지을 장소로 보타닉 가든 만한 곳도 없지 않겠어. 암, 그렇다니까.

시드니 작가 축제도 꽤 인상적이었지. 옛 철도 차량 정비소를 개조한 캐리지 웍스에서 열렸는데, 거칠고 빈티지한 구조물들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더군. 어느 시대건 오래된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가 동시에 읽히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

진실을 보여줘(SHOW ME THE TRUTH)가 이번 축제의 주제인데, 가짜 뉴스의 범람과 인공지능이 글을 쓰는 시대이니, 무엇이 진짜인지 문학으로 고민해 보자는 취지를 담았다고 하더군. 커다란 눈들을 그려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지. 알고 봐서 그런지 눈들이 진실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 세계 5대 문학

축제 중 하나라 전 세계 작가와 사상가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었지. 하지만 메인 축제장인 캐리지 웍스를 둘러 본 그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그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지.

"우리 도서전보다 규모가 작네."

축제 기간에 지역 서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펼지는 건 주목할 만하지만, 메인 축제장의 규모와 열기는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도서전만 못하다는 얘기였지. 그 말을 들으니 불쑥 호기심이 일었지. 언젠가 그가 말한 도서전에 가보고 싶다는 의지도 솟고 말이야. 어쨌거나 그를 따라 참관한 〈번역의 재발견 : 낯선 것과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의 열기는 뜨거웠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경청하는 자세도 놀라웠지. 새로운 것에 대한 인간의 지적 탐구심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 덕에 이야기가 끝도 없이 만들어지니, 격려하고 싶더라고.

축제장 말고도 간 곳이 수두룩했어. 호주의 문화 박물관이자 아름다운 열람실을 가진 뉴 사우스 웨일즈 주립 도서관에 가고, 독립 서점들도 방문했지. 서점에 쌓여 있는 낡은 책의 향기를 맡으니, 내 둥지가 있는 멜버른의 책방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인데, 다음 목적지가 멜버른이라지 뭐야. 마음이 통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깍깍" 소리를 내고 말았다니까.

멜버른이야말로 예술의 도시지. 내 둥지가 멜버른에 있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야. 멜버른은 말이지, 도시의 외관은 물론 골목 구석구석까지 예술이 스며든 곳이라고 할 수 있어.

골목 담벼락이 거대한 도화지 역할을 하는 호저 레인이 있고,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과 국립 미술관이 있고, 문학의 심장이자 생각의 아지트인 휠러 센터가 있고, 백 명이 넘는 예술가의 스튜디오로 채워진 니콜라스 빌딩은 예술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지. 또 도시 곳곳에 있는 오래된 독립 서점들은 건강한 독서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어. 멜버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가 된 데에는 이런 배경들이 한몫했지.

누가 뭐래도 멜버른의 자랑은 지역 서점이라고 할 수 있어. 런던 도서전에서 '올해의 인터내셔널 서점' 상을 받은 적이 있는 독립서점 리딩스는 '리딩스 문학상'을 만들어 신인 작가와 로컬 작품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어린이책을 전문으로 하는 리딩스 키즈는 일요일 아침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지. 그도 이 서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마침 마녀 복장을 한 직원이 아이들과 바닥에 앉아 책을 읽어 주고 있더라고.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책 속으로 빠져들어 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였지.

서점을 갈 때마다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문 곳은 손 글씨로 적은 북카드였어. 서점 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에 대한 추천 글을 적어 놓은 건데, 그런 북카드가 서가 마다 붙어 있었지. 서점 이용자들이 믿고 고르는 Staff Pick이 있을 정도라니 이것 또한 독립 서점만의 고유한 문화라고 할 수 있지. 베스트셀러 목록보다는 누군가가 적은 손 글씨가 책의 온기를 더 잘 전하지 않겠어.

예술가들의 문화 허브인 니콜라스 빌딩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백 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미로 같은 복도가 나타나고, 복도를 따라 늘어선 문에는 그 방이 누구의 공간인지,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지 명패가 붙어 있었어.

그를 따라 들어간 방은 한 화가의 작업실이었지. 화가의 그림이 벽면을 따라 걸려 있는데, 그림이 없는 곳엔 나무틀로 고정된 격자창이 있었지. 창문 너머로 플린더스 스트리트 기차역과, 건물 입구에 걸려 있는 아날로그 시계들이 보였지. 그가 창밖을 내다볼 때는 기차역 광장에 오래된 트램과 새것처럼 보이는 트램이 교차하며 지나고 있었어. 트램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지. 낯선 공간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보는 여유를 느끼는 듯했거든. 그가 눈으로 좇고 있는 트램처럼 오래된 것과 새것이 같은 시간에 공존하는 것이 멜버른의 특징이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 그가 찾고 있는 이야기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이야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기분이 말이야.

하루에 이만 보를 걷는 이들의 여정이 마무리된 곳은 사사프라스 마을이었어. 이거야말로 운명 같은 일이었지. 내 둥지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기거든. 마을 전체가 유칼립투스 숲과 거대한 고사리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의 질감부터 다른 곳이지. 시나몬과 생강 향이 나는 사사프라스 나무가 마을의 이름이니 더 말 안 해도 알만 할 거야.

하지만 사사프라스 마을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었지. 그건 애거사 크리스티 소

설에 나오는 할머니 탐정 '미스 마플'의 집이 있기 때문이야. 당연히 미스 마플이 사는 진짜 집은 아니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집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책을 들고 오는 걸 심심찮게 본다니까. 그게 바로 이야기가 가진 힘이지. 내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이제 나의 집이자 그가 들른 마지막 서점에 대해 말해야겠군. 빈티지 서점. 이름 그대로야. 여기는 낡고 귀한 책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점이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두운 색조의 원목 서가가 공간을 채우고, 천정에는 클래식한 샹들리에가 노란빛을 뿜어내지. 주인장이 지키고 있는 낮은 책장은 유리로 만든 진열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초판본이 놓여 있어. 주인장이 애지중지하는 책들 중 하나지. 내 둥지는 앨리스가 있는 책장 왼편에 있는 비밀 서고 안쪽이야. 거기 새 둥지가 있다는 걸 주인장은 모르지. 아마 꿈에도 생각 못 할 걸. 비밀 서고에서 바깥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건 우리 집안의 비밀이거든. 비밀이니 여기까지만 말하지.

서가를 둘러보던 일행이 하나둘 서점을 빠져 나가고, 그가 마지막으로 문을 향해 걸어 나갔지. 그때 나는 근처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어. 그는 서점 입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지.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쳤어. 나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지. 그도 그러더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지. 그의 까만 눈동자에 파란 하늘이 들어 있었어.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도 얼핏 스쳤지. 그 순간이었을 거야.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 것이. 늘 무표정한 얼굴에 웃음꽃이 피니 신기했지. 갑자기 그가 주머니에서 펜과 종이를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하더군. 너무 멀어서 뭐라고 적는지는 알 수 없었지. 하지만 글씨를 쓰는 손의 움직임을 보니 알 것도 같았어. 마침내 원하던 이야기를 찾았다는 걸.

적은 걸 주머니에 찔러 넣은 그가 발걸음을 옮겼어.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지 뭐야. 글쎄 아이처럼 경중거리는 걸음으로 팔까지 휘휘 내젓고 있더라니까. 나는 그가 찾은 감정이 오래 지속되길 빌었어. 그래서 멋진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었지.
나는 그가 아주 작아질 때까지 지켜 보다 둥지로 들어왔어. 여행이 좋은 건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이제 그만 나도 쉬어야겠어. 이번 여행을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건 언제라도 늦지 않을 테니까.













호주 도서관의 공간혁신과 문학 생태계를 살펴보다.

시드니·멜버른 도서관 탐방기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담당자 김 성 하
(현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7박 9일간의 호주 국외연수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이번 연수는 오랜 시간 도서관을 일터이자 삶의 공간으로 삼아온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도서관과 문학, 문학과 지역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는 뜻깊은 여정이었다.

5월 19일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해 10시간 넘는 비행을 마치고 시드니에 도착했다. 시드니 상공에서 마주한 붉은 여명은 긴 비행의 피로를 단숨에 잊게 만들었다. 도착해서 처음 만난 생명체는 현지에서 흔히 '쓰레기새'라 부르며 홀대한다는 호주흰따오기, '아이비스(Ibis)'였다. 노천카페 주변을 서성이며 사람들이 남긴 빵 조각을 가로채는 녀석들의 모습은 낯선 도시의 첫인상을 도리어 친근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어 시드니의 랜드마크인 하버 브릿지와 오페라 하우스를 마주하니, 비로소 이번 연수가 실감났다.

1. 시드니 (Sydney):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도서관 문화의 현장

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시드니 작가 축제(Sydney Writers' Festival)가 한창 열리던 5월 21일,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도서관을 찾았다. 1826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주 전체 도서관 서비스 개시 200주년을 맞이한 곳이다. 정문의 웅장한 사암 돌기둥이 인상적인 이곳은 1942년에 완공된 고풍스럽고 웅장한 구관 '미첼 빌딩'과 호주 이주 200주년을 기념해 1988년에 지어진 후 최근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마친 '신관'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단순한 도서를 열람하는 공간을 넘어 거대한 박물관이자 미술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이었다.

웅장한 열람실은 벽면 전체를 채운 고서들과 클래식한 목재 책상, 아치형 천장과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어우러져 고풍스러운 지적 분위기를 풍겼다. 특히, 높은 곳의 책을 꺼낼 수 있도록 연결된 2층 구조의 난간과 계단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어린이도서관은 천장에 책들이 마치 새처럼 날아다니는 듯이 조형물이 매달려 있었고, 독창적인 도서 소개 사인물은 아이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도서관의 자료는 관내열람만 가능하다. 법정 납본 제도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의 원본과 역사적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주립도서관의 핵심 임무이기 때문이다. 분실 위험이 있는 관외대출을 금하고 오직 관내 열람과 연구만을 허용하여 아카이브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었다.

도서관이 운영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Fellowship Program)'은 역사학자와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1,000AUD에서 최대 120,000AUD에 이르는 파격적인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기성 학자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신진 청년 작가(최저 연령 20세)부터 74세의 원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있었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도서관 내 전용 연구 공간(레지던스)이 주어지고, 무엇보다 전담 사서가 배정되어 밀착 연구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결과물 제출에 대한 압박 대신 "책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다"는 레이첼 박사의 말에서 공공기관이 창작자를 대하는 깊은 사회적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인터뷰 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파멜라 앨런의 특별전 《The Curious World of Pamela Allen》을 관람하였다. 전시장은 단순히 원화를 벽에 진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림책 속 공간을 실제로 재현해 놓았다. 관람자는 '미스터 맥기의 나무'를 오르거나, 거대한 그림책 페이지를 넘기고, 작품 속 등장인물의 모자를 써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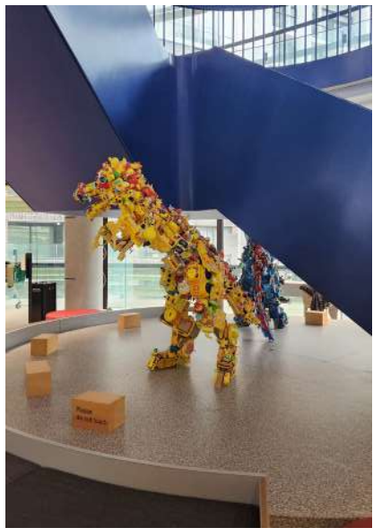





특히 파멜라 앨런의 원화, 스케치, 창작 노트 등 기록물을 활용해 그림책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작가의 아카이브를 문화콘텐츠로 재해석하여 대중과 공유한 것이 흥미로웠다.

나. 달링 스퀘어 도서관(Darling Square Library)
: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

시드니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달링 스퀘어 도서관은 외관부터 거대한 '새둥지'를 연상시키는 나선형 목재 건축물, '더 익스체인지(The Exchange)' 빌딩 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도서관 내부에 들어서면 버려진 플라스틱 장난감을 재활용해 만든 노란색 거대 공룡 조형물이 눈길을 끌며, 두 개 층을 연결하는 중심부의 푸른색 구조적 계단이 강렬한 시각적 포인트를 더한다. 계단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면 안내데스크를 비롯한 1층 메인 홀이 한눈에 들어오는 개방적인 구조이다. 천장의 노출형 배관과 밝고 둥근 조명들이 서로 어우러져 현대적이면서 탁 트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곳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지역 커뮤니티가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이자 첨단 창작 기지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내부에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제작 장비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와 다양한 창작·세미나 활동이 가능한 '랩(Lab)', 어린이 전용공간 그리고 몰입을 돕는 학습, 독서, 작업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도 돋보인다. 연수 당시 열리고 있던 '시드니 작가




축제' 안내 등 지역문화 소식과 이웃 분쟁이나 채무 문제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담은 리플릿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다. 여기에 자연광이 풍부한 열람 공간과 야외 테라스는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쉼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다. 시드니 로열 보타닉 가든(Sydney Royal Botanic Garden) 내 도서관

시드니 중심부, 푸른 항구와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곳에 도시의 오아시스 같은 식물원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품은 이 식물원 깊숙한 곳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학 전문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이 숨겨져 있다.

이곳 식물원에서 과학 커뮤니티 매니저인 Vanessa Fuchs를 비롯해, 최초의 가든 상주작가로 선정된 어린이 문학가 Cheryl Leavy와 만화가 Jess Horwood를 만났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의 지원으로 올해 첫발을 뗀, 식물원의 인프라와 문학 작가의 영감이 결합한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작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도서관의 규모는 아담하지만 식물 표본, 희귀 도서, 식물 세밀화 및 연구 기록 등 식물학 아카이브를 종합적으로 보존하는 중심지




다. 특히, Vanessa Fuchs 매니저 도서의 일러스트들이 모두 이 도서관의 자료에서 발췌되었을 만큼 깊이 있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서가의 안내 가이드마저 꽃과 식물을 배경으로 디자인되어 도서관 내부에서도 식물원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도서관은 오랜 세월 축적해 온 소중한 역사적 자료와 연구 기록을 창작자들에게 아낌없이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끄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단순한 정원과 서재를 넘어, 자연과 과학, 그리고 문학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진정한 창작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었다.

2. 멜버른 (Melbourne): 문학창의도시

가. 빅토리아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Victoria)
: 역사성과 개방성이 공존하는 공간

시드니 일정을 마치고 5월 23일 콴타스 항공(QF433) 편으로 호주의 문화·예술 수도라 불리는 멜버른으로 이동했다. 멜버른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1854년에 설립된 공공도서관이자 무료 개방 도서관 중 하나인 '빅토리아 주립도서관' 방문이었다.



도서관 외부 입구 양 옆으로 설치된 대형 체스판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스를 두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로비를 지나 '라 트로브 열람실(La Trobe Reading Room)'에 들어선 순간, 우와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하나라는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방사형 구조로 배치된 서가 위로 웅장하게 솟은 거대한 돔형 천장을 눈앞에서 마주하니 경이로움마저 느껴졌다. 천창을 통해 쏟아져 내리는 은은한 자연광 아래 수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고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과 4층과 5층 발코니에서 내려다본 열람실의 기하학적 뷰는 가히 환상적이었고 절로 책이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외에도 주요연구 및 독서 공간 중의 하나인 레이먼드 배리 열람실, 예술 열람실, 신문 및 가족사 열람실을 비롯해 다채로운 갤러리와 폴린 갠델 어린이 구역, 정보 센터, 이벤







트 공간 그리고 서점과 카페까지 매력적인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용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 거대하고 엄숙한 역사적 공간 안에서, 한쪽에서는 연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보며 입구의 거대한 체스판이 다시금 떠올랐다. 고전적 권위와 역사를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춘 개방적 운영 철학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3. 연수 총평

이번 연수 기간 동안 주립 도서관과 공간 혁신 도서관을 둘러보았을 뿐만 아니라, Writing Australia(호주 문학 전담 독립 지원 기구)의 책임자 Wenona Byrne과의 인터뷰, 시드니 작가 축제에 참가한 정보라 작가 대담 참관, 그리고 멜버른의 자부심인 독립서점 '리딩스(Readings)'와 '페이퍼백 북숍(The Paperback Bookshop)' 등을 두루 거치며 호주의 탄탄한 문학 생태계를 체험했다.

호주 역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긴 글(Long-form)을 읽는 독자가 줄어드는 문

제로 깊이 고심하고 있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7년부터 정부 차원의 가족 독서 캠페인과 문화 소외 지역에 작가를 파견하는 'Live Literature'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 했다. 이를 보며 이미 한국이 독서국가를 선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가정' 융합 독서사업이 떠올랐다. 학교와 마을,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발히 운영되는 우리의 독서사업이 모범적인 선행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도서관의 사례처럼, 도서관에 상주하는 작가가 창작에 필요한 지역의 역사 자료, 아카이브, 전문 서적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발굴할 수 있도록 도서관 사서와 작가를 1:1로 매칭하여 밀착 연구를 지원하는 전담 사서 시스템은 상주작가의 창작 퀄리티를 높이고 사서의 전문성을 확장한 사례로 보인다. 그리고 시드니 로열 보타닉 가든의 사례처럼 문학상주작가 지원 대상을 도서관, 서점, 문학관에서 국립수목원, 생태공원 혹은 지역 박물관 등으로 확장하여 융복합 문학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면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이 향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결과 중심에서 과정과 신뢰 중심의 사후 관리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결과물(출판, 정산)에 무게를 두기보다 작가가 안심하고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연구 공간 연장 혜택을 주는 등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인내심 있는 지원 패러다임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연수는 도서관과 문학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호주의 고풍스러운 도서관의 돔 천장 아래에서 독서에 몰두하던 시민들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번에 보고 배운 값진 경험을 도서관 현장에 충실히 적용하여 주민들의 문학적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모든 일정을 더없이 유익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한 담당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30년만에 만난 호주

시옷책방 김 중 석 작가

"호주라니!" 상주작가 우수시설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기대했던 해외연수의 행선지가 호주라는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다. 이전 해에는 유럽으로 다녀왔다고 알고 있었던 터라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호주라니. 하지만 연수를 하는 내내 그리고 돌아와서 되돌아보는 지금까지도 호주가 너무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짧은 여정에 많은 문화공간과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웠고 새로운 창작을 향한 에너지와 영감을 듬뿍 채운 시간이었다.

사실 호주는 30년 전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곳이었다. 그때는 결혼식을 마치고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여행사에서 안내하는 코스를 따라 몇 팀의 신혼부부들과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딘가에 내리고 밥을 먹고 멋있는 자연을 보며 감탄했지만, 자세한 것은 모두 다 머릿속에서 지워진 상태였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기억에 선명한데 또 어디를 갔더라? 캥거루를 만나서 먹이를 주기는 했는데 이제는 어느 동물원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 그렇게 나의 호주는 아주 오래전 앨범을 뒤져야만 나오는 추억속의 나라였다.

호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 개의 이미지는 오페라 하우스, 캥거루, 코알라 그리고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멋진 공원들 그리고 원주민들의 미술이었다. 그때의 호주와 지금의 호주는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기대감을 잔뜩 안고 출발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맑고 청명한 날씨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어제까지 비가 내리고 우중충한 날씨였다는데 다행이었다. 우리 일행중에 '날씨요정'이 있었는지 여정 내내 좋은 날씨 덕분에 즐거운 연수를 마칠 수 있었다.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오니 그때의 호주가 조금씩 떠올랐다. 커다란 나무들, 온통 영어로 만들어진 간판들(아주 당연하지만) 익숙함이 밀려왔다. 며칠의 여정 동안 인상깊었던 몇 개의 장면들을 기억해본다.

1. 라이온 킹 뮤지컬

시드니에 도착한 첫 날. 우리 일정에는 뮤지컬 '라이온 킹'이 관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창작자로서 부끄럽지만 뮤지컬은 몇 번 본 적이 없다. 공짜 티켓이 생겨서 다녀온 게 전부였다. 영어 대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영화로는 보았던 것이니 대충의 스토리는 이해가 되었다. (아! 영어의 벽. 이럴 때마다 영어 공부를 해둘걸 이라는 후회) 공연이 시작되기 전 놀라웠던 모습은 극장의 분위기였다. 판매원이 돌아다니며 맥주와 음료와 음식을 팔고 옆 사람과 떠들고 인사하며 사진을 찍고 객석에서 바로 보이는 무대 옆쪽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공연 전의 풍경과는 많이 다른 풍경이었다.

내가 집중적으로 본 것은 무대 미술과 의상이었다. 한정된 무대에서 공간을 변화무쌍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로 이루어졌을까? 무대의 일정 부분은 회전판을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가림막과 조명으로 초현실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높은 절벽을 상징하는 이 회전판은 갈등의 공간으로 때로는 성공의 공간으로 상징되었다. 배우들의 연기와 춤과 노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무나 완벽했다. 중간중간 객석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배우들의 모습도 공간을 더 넓고 다채롭게 보이게 했다. 보는 내내 뮤지컬을 좋아해서 혼자서도 열심히 보러 다니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들과 함께 봤다면 참 좋아했을 텐데' 언젠가 아들과 함께 이곳에 앉아서 보는 즐거운 상상을 해봤다.

2. 시드니 작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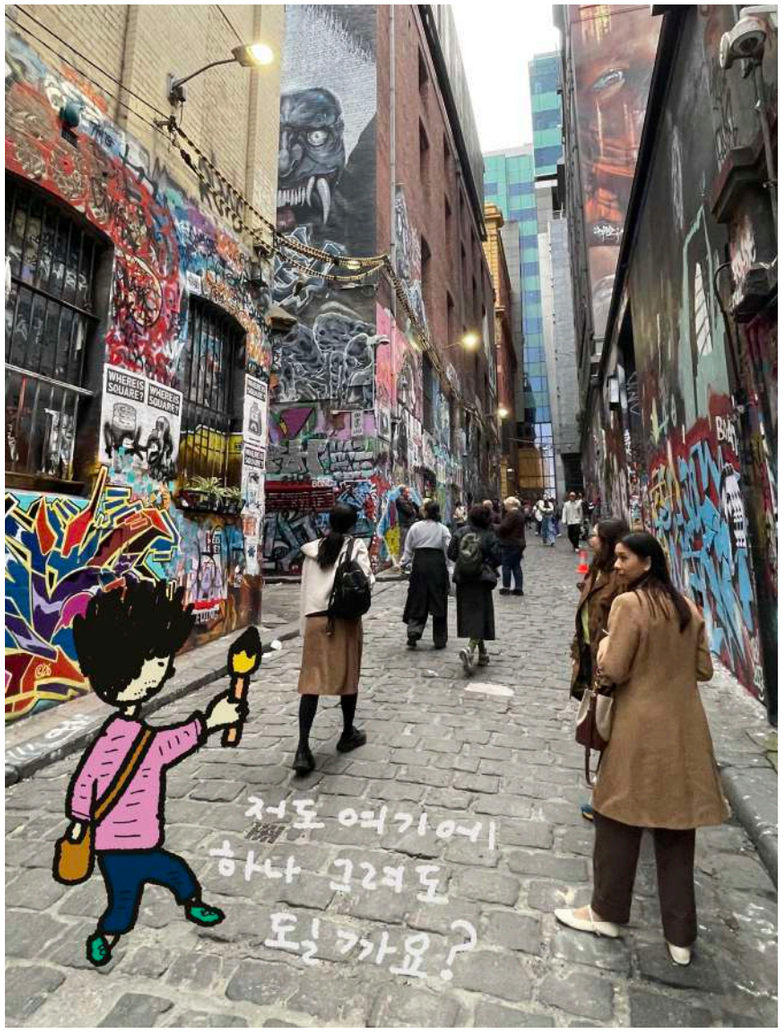
오래된 낡은 건물인 Carriageworks에서 열린 시드니 작가 축제는 공간에 반했던 일정이었다. 전시 기획도 하고 공간연출에 관심이 많았던 내게 작가 축제가 열리는 이곳은 무언가를 꾸미고 만들고 싶은 내 안의 기획 욕망을 꿈틀거리게 하는 곳이었다. 아마도 예전에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인 것 같은 이 공간은 낡은 벽과 여전히 남겨둔 공장 기물들의 흔적과 그 사이에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깔끔한 공간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책을 자유롭게 펼쳐두고 볼 수 있는 공간과 강연을 위해서 만든 또 다른 공간에서 열리는 작가 강연들.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준비하는 이들의 열정이 느껴졌고 책을 좋아하는 호주사람들이 아침부터 많이 찾아와 공간을 가득 채우는 모습도 좋아보였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이런 곳에서 열린다면 어땠을까? 동행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인천에서도 이미 이런 폐공장 같은 공간에서 책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다음에 꼭 한번 가서 비교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3. 호지어 레인(Hosier Lane) 그래피티 예술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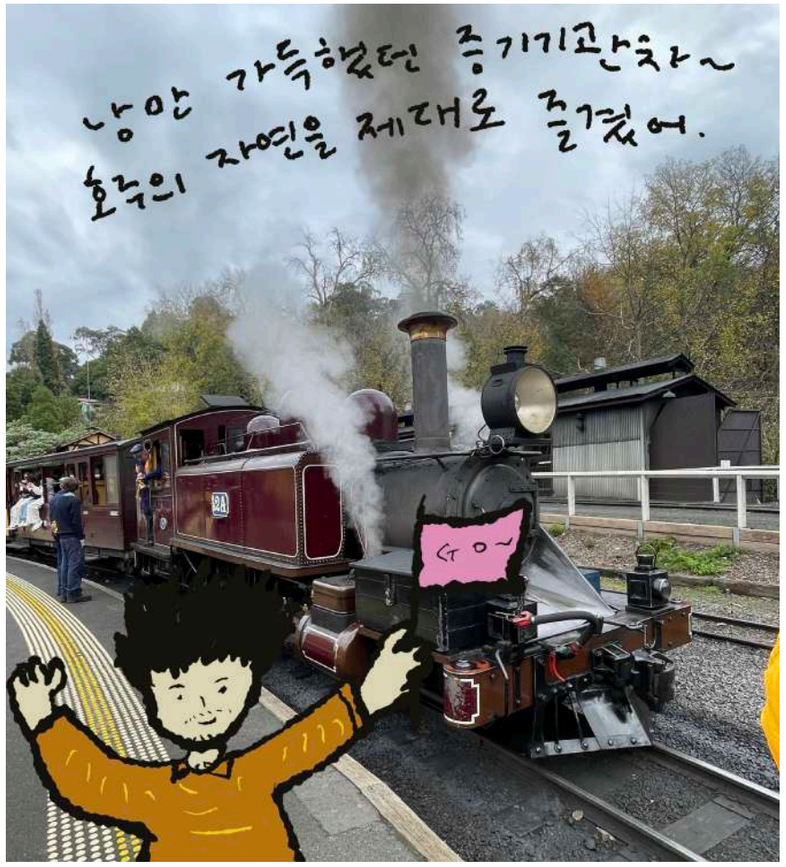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배경이 되었던 그래피티 골목(거리라고 하기에는 좁은 길) 이 호지어 레인 그래피티 예술거리이다. 이 드라마는 도대체 언제 적 드라마인가? 찾아보니 2004년이란다. 우리 소간지가 도대체 몇 살이었던 거야? 아무튼 이 드라마의 강렬한 시각효과 때문인지 이곳은 '미사거리'라고도 불린다고 했다. 바로 옆 골목만 해도 깨끗한데 이 곳만 유독 그래피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처음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낙서로 취급받다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버려서 그래피티로 가득 채워진 골목이 되었다고 한다.

벽화를 많이 그린 내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었다. 그림위에 또 다른 그림이 층층이 쌓이고 그 색감들이 더해져서 아름다움이 더해졌다. 아무도 계획하며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미지들이 쌓여갈수록 다른 곳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이 골목만의 멋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게다가 지금은 SNS의 시대가 아닌가? 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화려한 색감이 배경의 역할을 하니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었다. 유명하지 않아도 그림을 사랑하는 거리의 작가들이 쌓아서 만든 거리의 미술관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머물게 하는 것. 이런 게 예술의 힘이 아닐까?



4.
퍼핑빌리 레일웨이
Puffing Billy Rail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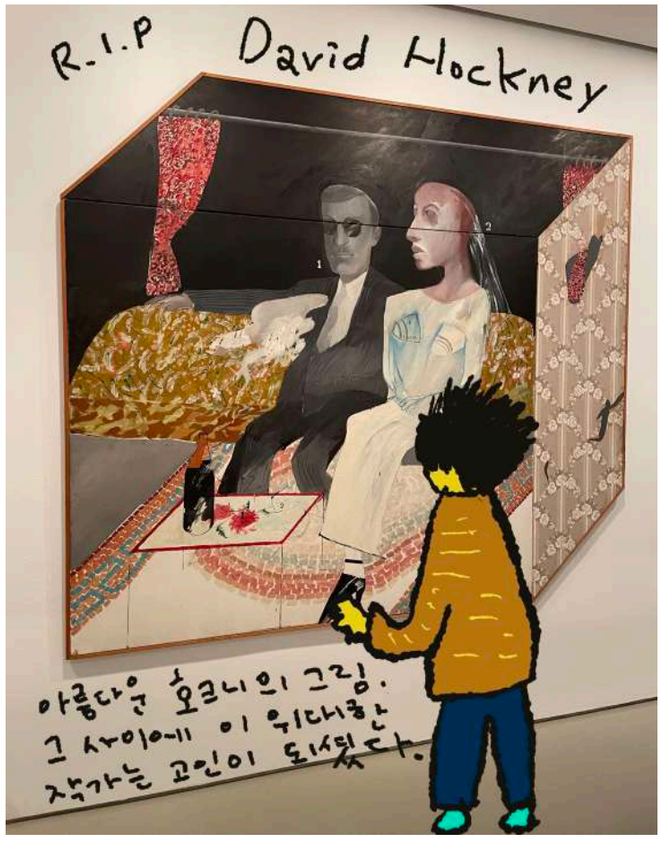
무성영화에서나 보던 증기기관차를 타고 멜버른의 산 속을 달리는 열차이다. 벌써 100년이 넘어서 이제는 사라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유산을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되돌려놓은 마을의 스토리가 인상적이었다. 산간 지역의 화물열차이며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다했던 증기기관차가 산사태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아쉬워했던 주민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내어 지금은 중요한 관광자원이 된 것이 이 열차였다. 시속 20km도 되지 않는 느린 열차가 뿜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산중턱을 달리고 나무 사이를 달린다. 사람들이 창틀에 다리를 내놓고 평화롭게 가는 이 느린 기차는 빠르게 달려가는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서 더 매력적이었다. 천천히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장난감 같은 마을 사이를 달리다 보면 아날로그 감성이 폭발했다. 아름다운 호주의 풍경과 달리는 기차를 향해 손 흔들어 주는 마을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천천히 두 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5.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그림을 공부한 내가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은 미술관이다. 멜버른에 있는 NGV에서는 다양한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었다. 피카소, 베이컨, 마크 로스코 같은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술관에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도 있었는데 전시를 보고 난 이후 한국에 있는 지금 시각에는 현대미술의 거장은 고인이 되셨다. 다시 사진을 돌려보니 그의 작품이 더 소중하게 보인다. 미술관의 콜렉션이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 많지는 않았지만, 호주 원주민 미술가들이 그림도 인상적이었고 고전주의 풍의 그림들도 호주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흥미로웠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도기부터 현대의 패션을 소개하는 공간까지 흥미롭게 본 전시였다. 꼼꼼하게 다 보려면 며칠은 걸릴 것 같아서 제대로 못 본게 아쉬운 시간이었다.





서점에서 분장을 하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아름다운 풍경들, 산속 깊은 동네에 자리 잡은 낡은 헌책방의 풍경들,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는 호주인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들,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향하는 호주인들의 부지런한 발걸음들, 처음으로 들어가 본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 건축물의 아름다운 모습들,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그림책 작가의 원화 전시, 비비드 시드니 라이트 축제의 일환으로 밤에 다시 찾은 오페라 하우스의 아름다운 모습들, 거대했지만 아름다웠던 보타닉 가든의 멋진 나무들.

스냅사진처럼 남아있는 호주에서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 동행했던 작가님들과 도서관 사서님들, 책방지기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의 모습까지. 이제는 앨범 속으로 차곡차곡 쌓아두어야겠다. 나는 또 30년 뒤에 호주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마도 이번에는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호주 책방에는 쉬라즈의 풍미와 앨리스의 꿈이 있다.

시옷책방지기 남규조

감사하게도 시옷살롱책방이 2025년 문학상주작가 우수기관 서점 부문에 선정되었고, 포상으로 호주 연수를 가게 되었다. 아르코에서 두 명, 도서관·문학기관·서점 각 기관의 담당자와 작가님 두 명씩, 총 여덟 명이 함께했다. 시옷책방에서는 그림책 작가 김중석 선생님과 동행했다. 작가님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5월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 날 아침 시드니에 도착했다. 여행 내내 여러 곳을 다녔지만, 연수기는 각 작가님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나누어 쓰기로 했다. 시옷책방은 '책방'을 중심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방문한 책방은 네 곳이다. 시드니 뉴타운의 Better Read Than Dead, 멜번의 Readings Kids, The Paperback Bookshop, 그리고 사사프라스 마을의 Through the Looking Glass.

김중석 작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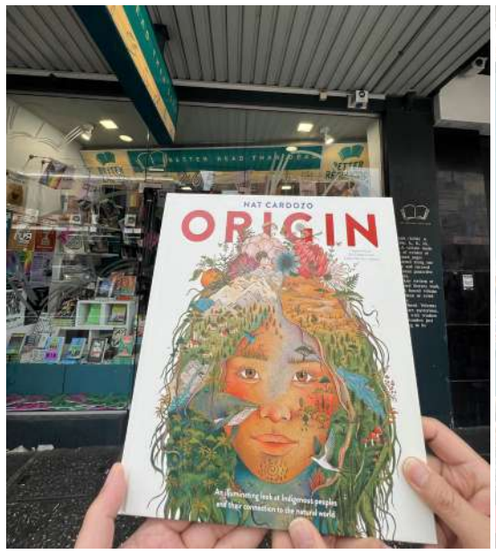
그림책 제작 워크숍 결과 발표회

그림책 제작 워크숍 결과 발표회 이후 김중석 작가님의 프리페인팅



Better Read Than Dead 시드니 뉴타운

뉴타운의 엔틱한 거리에 힙한 장소 Better Read Than Dead 책방. 서가와 매대는 분야별로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주요 도서는 포인트가 돋보이도록 진열되어 있었다. 동선도 잘 확보되어 있어 손님의 이동이 자연스럽고, 간섭이 적어 책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책방 앞에서 구입한 도서와 함께 | 서점 내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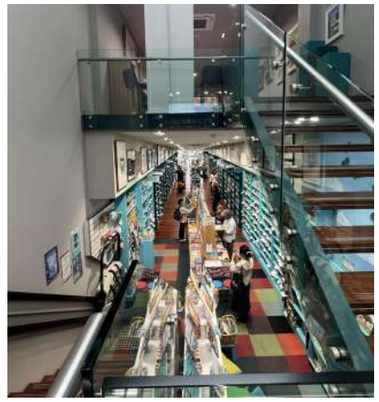


서점 내부, 1층

스킵플로어 공간을 활용해 1층과는 다른 섹션을 구성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동선의 지루함을 줄이고, 분야별 집중도와 서가의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다. 조금 올라가면 북토크와 전시가 가능한 아늑한 공간이 나온다. 공간의 온도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전통이 쌓인 책방의 외관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이 이미지는 책갈피와 다양한 굿즈로 확장되어, 방문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기념품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너른 자연과 독특한 생태가 공존하는 호주답게 동물·식물·생태 관련 큐레이션이 돋보였고, 이주민의 나라라는 특성과 맞물려 원주민 문화에 대한 내용도 곳곳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 원주민을 다룬 《Origin》이라는 책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구입하게 되었다. 또 서가에서 영화 '미나리'를 발견했을 때는 반가움이 밀려왔다.

서점 내부. 1층은 서가와 매대,
2층은 북토크와 전시 공간



서점 내부, 2층 북토크 및 전시 공간





서점 내부. 1층과 2층 사이 중층, 스킵플로어 구조,
Cooking Zone



서점 외관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 작품



서가에서 발견한 '미나리'

귀국 후 서점에 대해 추가로 찾아보았다(https://www.betterreadevents.com/). 저자 행사, 북클럽,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북클럽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다.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Better Reader Book Club은 신간, 고전, 단편, 장르소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었고, 번역문학 클럽, 제인 오스틴 및 고전문학 클럽, 여성 캐릭터를 분석하는 Bad Women Book Club 등 다양한 모임이 각각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어린이 대상 스토리타임은 주말마다 진행된다고 한다. Better Read Kids, Better Read Cooks, Better Read Tours, Talking Words Podcast처럼 책방 이름 아래 분화된 브랜드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시옷책방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가와의 만남, 독서모임, 그림책 제작 프로그램, '내책만세', 북페어, 전문가 연속 강좌, 그리고 문학상주작가·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같은 지원사업도 함께한다. 이 책방을 보며 든 생각은 '프로그램의 수'보다 '구조'였다. 이곳의 북클럽은 정해진 요일에 매달 반복된다. 한 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매달 다시 찾아오는 리듬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시옷책방 역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더 정교하게 다듬을 여지가 있어 보였다. 또 하나의 궁금증도 남았다. 이들은 지원사업에 얼마나 의존할까? 혹은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일까?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니 기우일까? 오가는 손님 수로는 호주는 여전히 독서 인구가 두텁고, 책방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1996년에 문을 연 이 서점은 '뉴타운의 지적 역동성을 키워온 문학의 랜드마크'로 불린다고 한다. 곱씹어볼 만한 책방이다.

Readings Kids 멜버른

멜버른에 있는 Readings를 방문했다. '2016년 런던도서전 올해의 서점상 수상, 자체 문학상 및 지역 작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소개가 인상적이었다. Readings는 칼튼에 본점이 있고, 바로 옆 315 Lygon Street에 어린이 전문 매장 Readings Kids가 따로 있다.

들어서는 순간, 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일부러 꾸민 '어린이 공간'이 아니라, 원래 그런 공간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우측 벽화는 책방전체를 꿈꾸듯 분위기를 잡아주었다. 마침 방문 직후 그림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장면처럼 느껴졌다. 마법사 복장을 한 진행자는 애니메이션 속 인물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냈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웃으며 집중했다. 서점 전체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자체로 행복한 풍경이었다.

Readings Kids에서 구매한 그림책



추가로 찾아보니, Readings Kids는 2016년 본점에서 분리되어 문을 열었다고 한다. "모든 아이에게 맞는 이야기를 찾아주고, 평생 독서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책방 슬로건이 있다고 한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0세부터 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 스토리텔러가 진행하는 무료 스토리타임이 열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침 방문한 시간과 정확



마법사 복장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주제별로 큐레이션된 그림책 매대

히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 곳에서는 저자 사인회나 신간 런칭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책, 음악, 게임을 포함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서점”이라고 한다. 특히 쇼윈도에 그림책 장면을 입체 설치물로 구현해 놓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책방으로 들어오는 아이들과 부모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시옷책방은 어린이 전문 서점은 아니지만, 파주출판도시의 ‘어린이 책 축제’나 ‘북소리축제(북앤컬처)’와 연계한 오픈하우스,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 등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전문 스토리텔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림책 읽어주는 아저씨’나 마법사 콘셉트를 한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부산 사투리를 쓰는 마법사를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좋은 어린이 서점을 만나 기쁘다. 지금은 태백으로 간 ‘동화나라’ 책방이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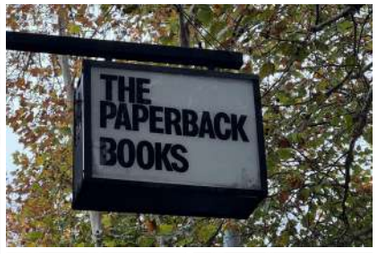
The Paperback Bookshop 멜버른

The Paperback Bookshop을 찾았다. 일정표에는 ‘1960년대 개점한 독립서점의 원형, 수준 높은 문학 큐레이션과 심야 운영으로 지역 문학 커뮤니티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다. Bourke Street 끝자락, 작은 간판이 플라타너스 아래 살짝 튀어나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리 없는 탄성이 나왔다. 아담하고 밀도 높은 공간이었다. 길가로 난 통창은 인사동 골동품 가게

서점 외부. 통창으로 보이는 서점의 책들이 따뜻하다.



심플한 간판과 가로를 보고 있으면
연남동 어디에 서있는 듯하다





작은 서점의 입구에는
뭔가 신비로움이
스며 있다.



빼곡한 책들과
적당히 드나드는, 끝없는
손님

를 떠올리게 했다. 빼곡한 책들,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공기, 그리고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 서점은 1960년대 후반, 당시 호주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미국 페이퍼백, 특히 비트 시인들의 책을 들여오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비트 시인은 1950년대 미국에서 물질적 풍요와 획일화된 사회에 저항하며 등장한 문학운동의 시인을 말한다.)바로 옆의 Pellegrini's Espresso Bar와 함께 멜버른의 밤 문화를 만들어낸 공간이기도 했다. Pellegrini's는 1954년에 문을 연 이탈리아식 카페로, 작가·예술가·배우·지식인들이 모이던 보헤미안 아지트였다. 책방에서 책을 고르고, 옆에서 에스프레소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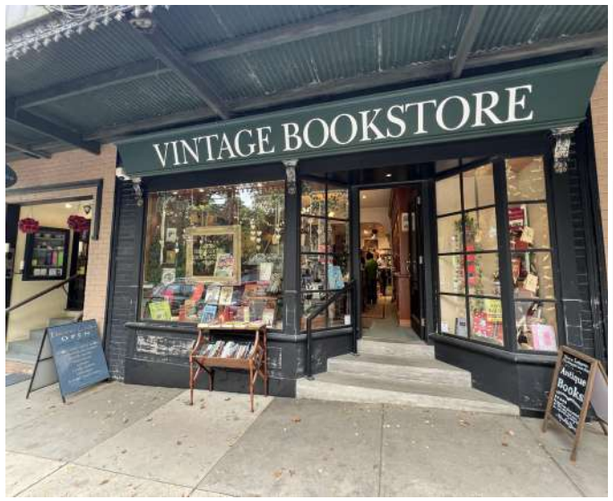
책과 커피, 그리고 쉬라즈가 멜번의 문학적 장면을 함께 만들어온 것은 아닐까. 이 책방에서 운영하는 Salon Series가 있다고 한다. 작가와 독자가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작가가 함께 낭독하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도 진행된다고 한다. 책방은 좁아서 별도의 공간(Coates Community Arts)을 빌려 와인을 마시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점도 재미나 보였다. 아마도 책 판매만으로는 공간 대여비나 인건비 등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아무튼 자유롭고 부러운 문화다. 우리나라도 책방에서 종종 막걸

리나 와인, 맥주를 마시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시옷책방도 주류 판매 허가를 가지고 있어 일부 프로그램에서 막걸리를 곁들이기도 했다. 다만 방문객 대부분이 차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책과 술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쉽지는 않지만... 이젠 시옷책방에도 쉬라즈의 풍미가 필요할 때다.

Through the Looking Glass
사사프라스 마을, 5월 25일

단데농 산맥으로 향했다. 재미난 꿈의 퍼핑빌리 증기기차를 타고, 레이크사이드 역에서 내려 사사프라스 마을로 갔다. 길을 따라 조금 걸으니 Through the Looking Glass를 만날 수 있었다. 들어가니 중고책 향긋한 냄새가 났다. 꿈 같은, 뭔가 요정 같은 귀여운 옛 것이 숨어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 공식 소개 문구는 "단데농 산맥과 멜버른의 아름다운 곳들에서 중고책과 다른 호기심의 물건들을 다루는 서점." 고전과 컬트 문학, 호주 문학, 어린이책에 강하다"고 한다. "누구나 한 권쯤 만날 수 있는 포근한 작은 가게"라 한다.

사진을 찍었던 것 중에 무심코 세 권의 책을 찍은 사진을 검색해봤다. 이 책들에게는 책방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서점 이름이 Through the Looking Glass 인데, 유리 진열장 안에 루이스 캐럴의 희귀본 세 권이 놓여 있다. 서점 이름의 출처가 되는 바로 이 책들이 서점에서 가장 의미있는 책들이었다. 검색을 해도 주인이 왜 제목에서 책방 이름을 차용했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지만, 거



Throuhg the Looking Glass 서점 전경



유리창에 씌여진 서점 이름

그냥 지나치기 쉬운 비밀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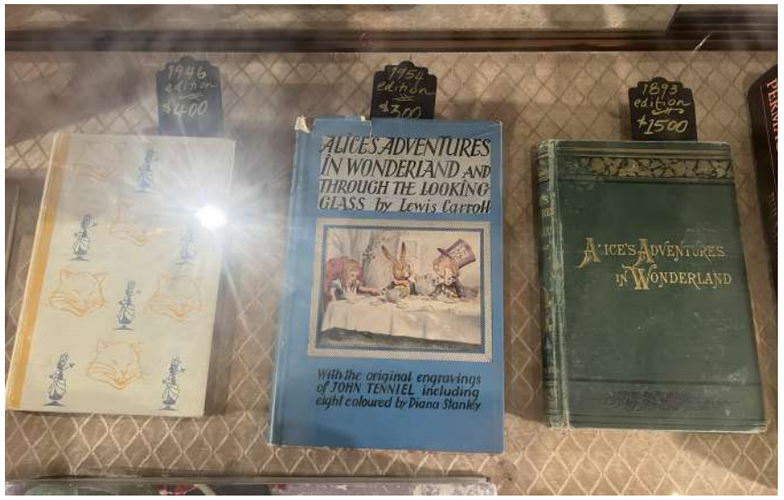
비밀의 방 내부




비밀의 방에서 바라본 정원


왠지 모르게 신비로운 주인 아저씨

울 속으로 들어가면 상상하지 못한, 이상한 것만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마도 중고서점은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꿈과 상상, 낭만이 펼쳐지는 곳으로 책과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닐까? 알 수 없는 무엇,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지듯 선물과도 같은 책의 발견, 그런 의미로 책방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닐까? 사진 속 책 정보를 찾아봤다.



왼쪽 — 1946년판 ($400)

흰 바탕에 고양이와 체셔 캣, 트럼프 병정 문양이 그려진 표지이다. 1946년판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출판된 판본으로, 전쟁 중 용지 부족이 해소되던 시기에 재출간된 것이고, 삽화 스타일이 단순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가운데 — 1954년판 ($300)

제목이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Looking-Glass" — 두 권을 합본한 판. 원화가 존 테니얼(John Tenniel)의 목판 삽화를 기본으로 하되, 다이애나 스탠리(Diana Stanley)가 8점을 컬러로 재작업한 J.M. Dent 출판사의 1954년 초판 합본이라고 한다. Dent & Dutton의 Children's Illustrated Classics 시리즈 중 하나로, 컬러 도판이 포함된 첫 합본이라는 점에서 수집 가치가 있다고 한다.

오른쪽 — 1893년판 ($1,500)

진녹색 천 표지에 금박 글씨.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맥밀란 출판사가 존 테니얼 삽화와 함께 펴낸 19세기 판본으로, 1865년 초판 이후 수십 년간 꾸준히 인쇄된 빅토리아 시대 판입니다. 이 시리즈의 1865년 초판은 현재 단 23부만 현존하며 경매가가 수억 원대에 이르지만, 1893년판도 보존 상태에 따라 고가 희귀본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재미난 책방이다. 누군가 책방 문을 연다면, 책방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Stop!~ Kids only. No Grown ups!"

모두 재미나고 특색있는 책방이었다. 연수를 하는 중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돌아와 사진을 정리하고, 궁금한 부분을 찾아보니 너무 재미나고 소중한 책방들이었음을 새삼 느낀다.

마지막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주신 아르코와 세심하고 알차게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끌어 주신 윤지현, 서유미 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ISING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025년도 우수시설 국외연수
2026. 5. 19. - 5. 27. / 호주 시드니, 멜버른




OPERATION SQUARE


state library nsw


SYDNEY WRITERS' FESTIVAL
SHOW ME THE TRUTH
WRITERS AND THINKERS
A FESTIVAL FOR READERS, WRITERS AND THIN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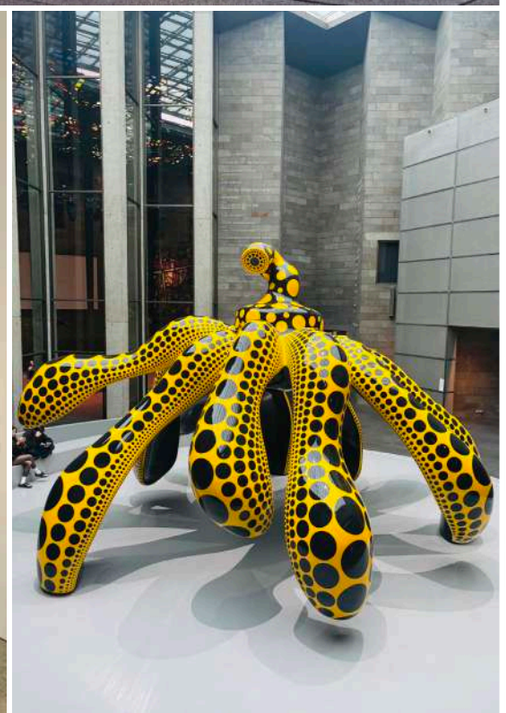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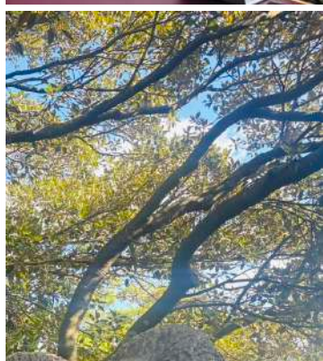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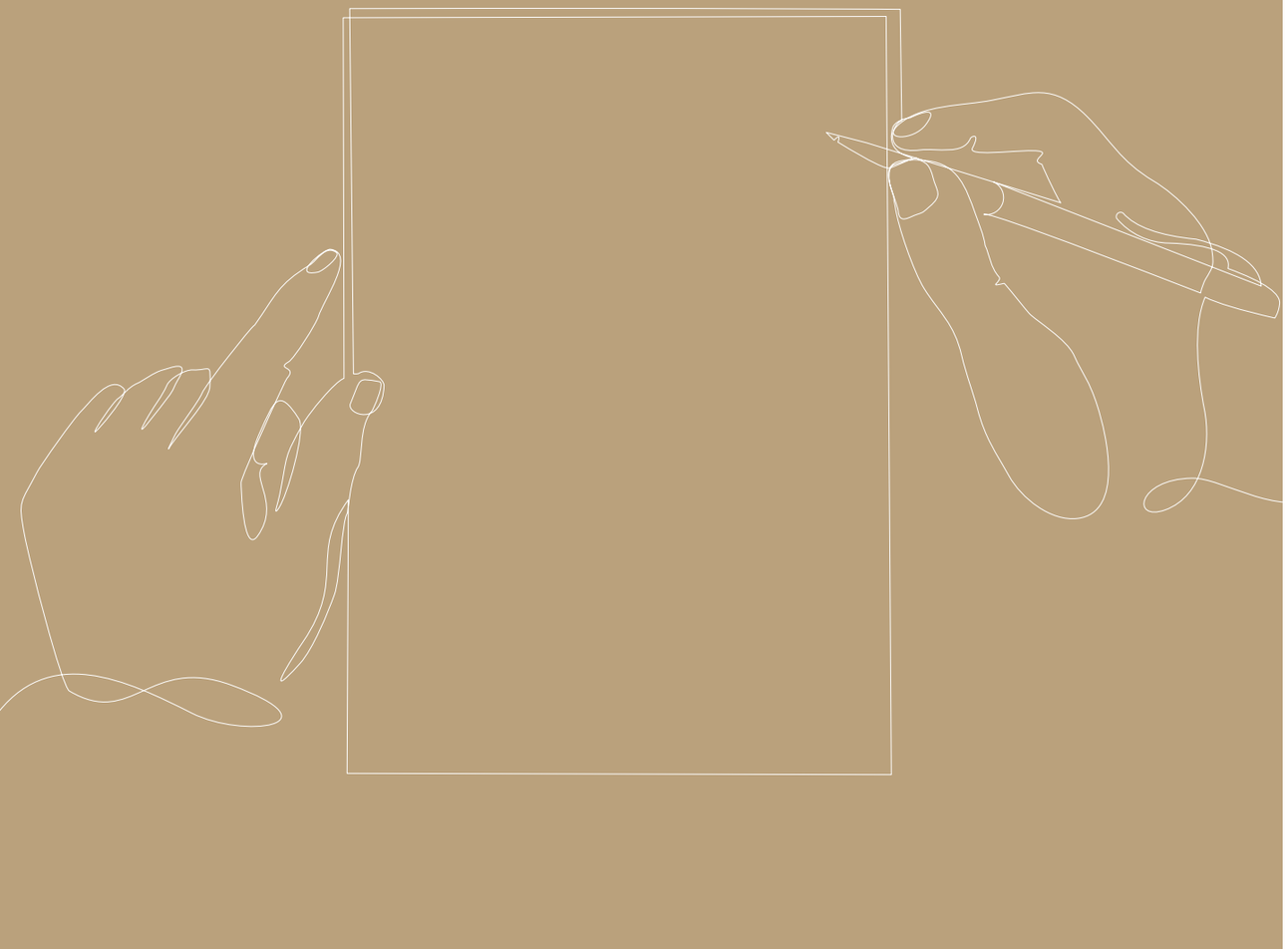






VI 연수참여자 이력 및 소감



김 홍
소설가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단편집 「우리가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여기서 울지 마세요」, 장편소설 「스모킹 오레오」, 「엉엉」, 「프라이스 킹!!!」, 「말뚝들」을 냈다. 문학동네소설상,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했다.

상주 작가 사업으로 한 해를 채우며 큰 도움 속에 읽고 썼다. 호주 연수로 이어져서 문학과 공공성, 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됐다. 혼자 쓰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일이라는 걸 생각한다. 그 길에 늘 다정하게 있어줄 사람들을 만난 연수였다.

전수지
중랑문화재단
중화문학도서관
사서

2025년 사서로 첫 발을 내디디며 현재 몸담고 있는 중화문학도서관 개관 업무에 참여했다. 개관 이후 대외 공모사업과 도서관 특화사업 기획·운영을 담당하게 되었고, 곧바로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맡게 되었다.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서가 된 첫해, 새로 개관한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맡게 된 공모사업이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기획부터 행정, 정산까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 부딪치고 배우며 정신없이 달렸지만, 그 과정 속의 은근한 희열과 배움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우수시설 선정과 호주 연수라는 귀한 선물까지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연수에서 만난 작가님들과 각 기관 담당자분들, 그리고 아르코 관계자분들 덕분에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된 만큼, 올해 상주작가 사업은 더욱 멋지고 재미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은
어린이청소년책
작가

2003년 단편동화 「컴맹엄마」로 등단했다. 지은 책으로 「귀신 새 우는 밤」, 「훈이 석이」, 「동수야 어디 가니?」, 「안녕 나의 우주」, 「고리의 비밀」, 「내가 너에게」, 「천삼이의 환생 작전」, 「용용의 학교 점령기」, 「개천에서 복룡이 날다」, 「곤을동이 있어요」등이 있다. 제1회 푸른문학상 새로운작가 추천 우수상, 2026 아르코문학작가 펠로우십 선정, 2025년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상주작가로 활동하였으며, 2025년 상주작가 우수시설 작가로 선정되었다.

호주 문학 탐방은 많은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는 오래된 것과 새것이 절묘한 조화를 이뤘고, 독립서점들이 독서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모습은 인상 깊었습니다. 공공대출보상권이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좋다고 느낀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 작가들이 우리 나라로 연수를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주작가를 통해 좋은 분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 때문에 글쓰기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오래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성 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안도서관
사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사업에 힘썼으며, 2025년에는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에서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담당하였다.

예상치 못한 기회로 좋은 분들과 함께 호주 국외연수에 다녀오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도서관과 서점, 그리고 문학이라는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 중 석

그림책 작가

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공부했다.
열여덟 번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화가, 그림책작가, 벽화가, 전시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꼴찌라도 괜찮아!」, 「엄마 사용법」, 「행복한 학교」, 「제주섬의 어머니산, 한라산」 등 100여권의 책에 그림을 그렸고 「아빠가 보고싶어」, 「나오니까 좋다」, 「그리니까 좋다」, 「열매가 톡!」, 「빵빵 무슨 빵?」을 쓰고 그렸으며 「잘 그리지도 못하면서」 라는 에세이집도 냈다.

작년 한 해 시옷책방에서 상주작가로 근무했다. 원래도 시민들과 만나서 수업을 많이 했지만 책방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시간이었다. 함께 그림책을 이야기하고 놀며 고민했던 시간들이 함께 스쳐지나간다. 창작은 혼자 하지만 수업을 하며 나누는 시간은 또다른 기쁨이었으며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것을 배운 시간이기도 했다. 게다가 그 보상으로 호주연수의 기회까지 얻었으니 더할나위 없이 감사하다. 이제 보고왔던 좋은 경험들을 창작으로 가득 채워보겠다.

남 규 조

시옷책방지기

2026년_문학상주작가 시설 선정, 길위의 인문학 자동 선정, 길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선정, 생애주기사업 선정 2025년_문학상주작가 선정(우수시설 선정), 길위의 인문학 선정(문체부장관상 수상), 경기도지역서점 지원사업 선정, 시옷책방 북페어 개최 등
2024년_문학상주작가 선정, 길위의 인문학 선정, 경기도 지역서점 선정 등
2023~2021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및 작은서점 지원을 위한 작가회의 사업, 출판도시인문학당, 심야책방,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등

2025년 문학상주작가 김중석 작가님과 했던 여러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웃음소리와 감동이 끊이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우수시설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물의 일부는 정식 출간(<깁스 일기>사소한(본명 : 한현아)), 출판계약(<다녀오겠습니다>이지연, <여행>이지현, <강변마을에 살다>장순일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수로 갔던 호주의 많은 프로그램은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문학기관의 운영, 지원 등에서 한국과 다른 점과 배울 점을 알 수 있었고, 너른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펭귄의 회귀는 '인생추억'이 되었습니다. 김중석 작가님을 비롯한 여러 작가님과 담당자님들 덕분에 즐거웠고, 모든 시간을 꼼꼼히 기획하고 배려 깊게 진행해주신 두 차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 지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차장

평생 일하고 싶던 아르코에,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에 입사하여, 소원대로 25년째 다니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일은 어렵다.
2024년부터 문학지원팀에서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전국 모든 문학시설에 상주작가 파견이 가능하다고 믿는, 상주작가 과몰입러.

일주일 만에도 깊이 정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금사빠인 걸까요?
문학의 향기가 곳곳에 스며든 호주의 도시와 자연과도, 매일 강행군으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배려와 웃음으로 전 여정을 함께한 연수 단원님들과도 정이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소소한 기억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문학 지원 체계나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동시에 신뢰에 기반한 호주의 유연한 행정 처리와 소통방식을 보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모두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 유 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차장

2011년 문학 담당자를 꿈꾸며 입사하였다. 기획예산부, 문화누리부, 문화예술후원센터, 공연지원부, 기획조정부, 지원총괄부 등을 거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문학지원팀에서 문학주간을 담당하고 있다. (성공한 덕후생활 중!!)

호주에 다녀온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자꾸만 사진첩을 열어보게 되어요. 문학에 진심인 분들과 함께 한 짧고도 긴 시간이 한창 '문학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두터운 독서 인구, 커다란 폐창고를 가득 채운 시드니 작가 축제 참여자들, 매진 임박 상태의 수십 개 북토크 프로그램들, 드넓은 도서관에서 자유롭고 여유롭게 책을 보는 많은 사람들, 조금은 시샘이 나는 광경들이 떠올라요. 하지만 우리도 곧 '문학주간'으로 전 국민이 문학애호가로 거듭날 예정이니까 부러워하지 않고, 더 깊고, 더 넓게 문학 지원 사업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025년 우수시설
국외연수
결과보고집

총괄
김나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장
윤지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차장
서유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차장

협력
Wenona Byrne, Writing Austalia, Director
Vanessa Fuchs, Botanic Garden of Sydney, Content manager
Cheryl Leavy, Writer
Jess Harwood, Cartooninst
Genevieve Freeman,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Project Officer, Office of the State Librarian
Dr Rachel Franks.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Coordinator, Education & Scholarship

참여자
김홍 소설가
전수지 중랑문화재단 중화문학도서관 사서
오시은 어린이청소년책 작가
김성하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사서
김중석 그림책 작가
남규조 시옷책방지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